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 5년 새 2.5배 늘었다

대구 ‘무연고 사망’ 급증세

관계 단절과 빈곤 때문에 대구의 ‘무연고 사망’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지난해 가족이 찾지 않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했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소외와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3년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전체 무연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9명보다 28.2%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증가율은 244%에 달

한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121명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 사망은 가족·친척·사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다.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척을 찾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발견 장소 소재지의 행정기관이 시신을 인수해 일정 기간 공지를 거친 뒤 화장과 봉안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가족관계 끊긴 1인가구 증가 ‘코로나 변수’ 거리두기 영향 작년 사망자 중 79%가 ‘남성’ 60대 이상 고령층 66% 넘어

최근 들어 1인 빈곤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줄어든 것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빈곤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공공기관의 돌봄도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위축되면서 이들의 위기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남성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다. 지난해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이 151명으로 79%를 차지했다. 수급자는 147명으로 76.9%에 이른다. 올해도 8월까지 집계 중 남성이 67.7%이고, 수급자는 80.1%에 달했다.

나이를 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무연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49.3%였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65.9%, 66.3%로 많아졌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3.1%나 된다.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관계 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가족관계 단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간 자원봉사 등 관계 형성에 중요한 활동들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위드 코로나’ 이후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등 지역 돌봄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혁규 기자 unless@maeil.com

군위 대구 편입안 도의회 ‘진퇴양난’

재상정했다 최종 부결 댄 큰 파장 회기 미뤄도 국회 입법 시간 촉박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는 행안부 요구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혼란의 불씨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가 편입 찬성 및 반대 의견 모두를 불채택하면서 일었다.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찬·반 모두를 불채택한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자 행안부는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이대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3일 전례를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회의원 실득 등 후속 과정에 힘을 보탬 테니 속도를 내자고 설득했지만 전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고심에 빠졌다. 경북도는 다시 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만에 하나 최종 부결될 경우 파장을 견딜 수 없다고 우려한다.

도의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불과 한 달여 전 다른 동일 안건을 다시 표결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편입 시점을 미룬 조건부 찬성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 다시 표결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표결 시점도 고민거리다.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일정 내에 표결하려면 긴급한 사정에 따른 의장 상정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다.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다음 도의회 일정은 다음 달 8일 시작하는 데, 개회와 동시에 안건을 처리해도 국회 입법을 위한 시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 등 일정이 촉박해진다. 정기국회 종료는 12월 9일이다. 도의회는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이 조만간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찬·반 동수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여파는 도의회 본회의, 행안부로 이어지며 다음 행보를 줄줄이 꼬여왔다”면서 “편입 동시서에 서명해 놓고 ‘무기명 투표’의 그늘 아래 입장을 바꿨다가 결국 어떤 의견도 채택하지 못한 도의회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태 기자 pyc@maeil.com



전어철...강태공들의 ‘낚시대 물결’ 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방파제에서 강태공들이 제철 생선 전어를 잡기 위해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유동규 구속되니...이재명 “유감” 국힘 “李 사퇴하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의혹’ 대선 정국 큰 변수로 李 “성남시장 퇴임 후 일” 선국기 국힘 “특검 관철” 도보 투쟁 예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대선 정국에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가도 1위를 질주 중인 이재명 후보는 유 전 본부장 구속 뒤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특검 관철을 위해 ‘도보 투쟁’을 예고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4일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

명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지역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첫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비위 의혹은 성남시장 퇴임 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사퇴해야 한다.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책임론에 역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유 전 본부장 구속이 대선 경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향후 과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본선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특검 관철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다 걸기를 했

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기자 회견에서 이 후보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펼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마땅히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이동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도보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과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송신승 기자 sssyk06@maeil.com

하이자 백신 ‘부스터샷’ 효과 탁월...고위험군 예약 시작 ▶8면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공급공고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21-161호

1 공급대상 토지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유치업종	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신소재	7	1,583~1,786	2,108,397,000~2,426,816,000
	전자정보통신	7	1,602~1,751	2,155,330,000~2,619,671,000
	자동차 및 운송장비	2	1,425~1,582	1,917,195,000~2,149,779,000
복합용지	메카트로닉스	22	1,107~2,082	1,519,025,000~2,769,684,000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1	3,230	6,458,385,000

2 입주가능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신소재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운송장비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복합용지	메카트로닉스	·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C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단,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은 C27193(인경 및 인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재료(해당산업체에서 제조·원료된 제품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 제조업체에 한함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복합용지	전자정보통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전기 장비 제조업(C28)
	메카트로닉스	·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C27)
복합용지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 출판업(U58)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U59) · 방송업(U60) · 통신업(U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U62) · 정보서비스업(U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3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복합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 및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인(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분	기간	장소
입주 및 분양 신청 신청예약금 납부	2021.10.19(화) ~ 10.21(목) (10:00 ~ 17:00)	대구도시공사 (2층 투자상담실)
입주심사	2021.10.25(월) ~ 10.29(금)	금호워터폴리스 입주심사위원회
입주(적격)업체 선정결과 발표	2021.11.02(화) 10:00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duco.or.kr)
A10블록(안광학산업 집적지) 필지추첨	2021.11.03(수) 10:00	대구도시공사 (2층 강당)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2021.11.04(목) ~ 11.05(금) (10:00 ~ 17:00)	대구도시공사 (2층 투자상담실)

5 대금납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가격의 10% (계약체결 시)	공급가격의 80% (매6개월 단위 4회 균등 분할납부)	공급가격의 10% (별도 통지)

6 공급문의

공급신청 관련	대구도시공사 보성평매처 ☎ (053)350-0332~4
입주심사 관련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 (053)803-6022
입주업종 및 입주계약체결 관련	(사)검단산업단지 관리공단 ☎ (053)383-8810~1

*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5.

남북 통신선 복원...與 “평화 훈풍” 野 “의도 경계”

55일 만에 복구 여야 입장차
민주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국힘 “미사일 쏘고 약 주냐”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4일 여야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환영의 메시지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북측의 의도를 경계하고 나섰다.

김병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남북 통신선 복구를 발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복구되고 정상화됐다”며 “폭풍의 위기 속으로 빠질 뻔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이번 일이 평화의 전서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대화의 시곗바늘을 다시 돌려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를 이루고 종전선언을 추진해 남북 사이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시우보의 자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



낙동강 오리 가족 4일 오후 경북 상주시 낙동강 경천섬을 찾은 시민들이 높이 16.2m, 길이 19.5m 초대형 오리를 구경하고 있다. ‘외톨이’ ‘왕따’ 등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낙동강 오리알’이 당당히 알을 깨고 나와 가족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상주시가 마련한 전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방적으로 단절과 복원을 반복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북한이 화해 제스처 뒤에 또 어떤 청구서를 숨기고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남북통신선 복원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내실 있는 남북대화로 이어질지 기대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직 문재인 정권만 북한의 강온양면 전략에 부화뇌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 후 통신선 복원이 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북한 태도에 국민 여론은 냉소가 가득하다”며 “북한

은 대통령을 향해 정상회담 후 얻은 것이 없었다며 ‘옥류관 국수 처먹을 때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라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인 만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신용 기자 ssyk06@maeil.com

부동산 투기 여전

한 사람이 1억 미만 아파트 269채 사고

다주택자 기본 취득세율 적용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인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고, 법인은 1천978채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

해 8월까지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이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 대책 발표 후 거래가 55.0% 증가했다.

다주택자 ‘원정 쇼팡’은 지방 비규제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는 경기(3만3천138가구), 경남(2만9천522가구), 경북(2만6천393가구), 충남(2만4천373가구), 충북(1만9천860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1천 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천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천 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이상준 기자

열 살 안 된 아이들 주택 매입 4년간 552건

대부분 증여·전세 킷 갭투자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자금을 모두 합치면 1천억원을 웃돌았는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부분은 증여와 전세를 킷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다. 매입가격은 1천47억원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 86건(182억5천만원), 만 9세 79건(181억9천만원),

만 7세 69건(128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영아도 11건(25억1천만원) 신고됐다.

김 의원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했는데, 각각 9억7천만원의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보탬다고 신고했다. 2018년생이 태어나던 해에 자금 9억7천만원을 갖 고 집을 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aeil.com



대졸 정규직 초임 양극화 5,084만원 vs 2,611만원

(300인 이상 기업) (5인 미만 사업체)

경총, 고용형태별 근로 분석
신입 근로자 평균은 3391만원
모든 규모에서 일본보다 높아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신입 근로자가 작년에 받은 초임은 초과급여를 포함해 평균 5천8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2천61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경제기자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임(초과급여 포함 임금총액)은 평균 3천39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대졸 정규직 초임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이 평균 5천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299인 3천329만원, 5~29인 2천868만원, 5인 미만 2천611만원이었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평균 3천250만원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가 평균 4천6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299인 3천188만원, 5~29인 2천795만원, 5인 미만 2천599만원 등으로 집계돼 5인 미만 사업체의 초임이 300인 이상 사업체 초임의 55.4% 수준에 그쳤다.

경총은 일본과 대졸 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모든

규모에서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환율 적용 시 우리나라의 전체(1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초임 평균은 3만6천743달러, 일본은 2만8천973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5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대졸 초임은 4만7천808달러로, 일본 1천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대졸 초임 2만9천941달러보다 59.7% 높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규모(10인 이상)에서 86.0%로 나타나 일본(68.7%)보다 17.3%포인트 높았다.

10~99인 사업체 상용직 대졸 초임이 100으로 낮을 때 일본 대기업(1천인 이상)은 113.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500인 이상)은 151.7에 달하는 등 규모별 대졸 초임 격차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컸다.

이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제 임금 체계와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도 일률적이고 연공에 기반한 임금 설정이나 인센티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임금 체계로 바뀌어 나가고, 근로자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럽고 대우
Happy Citizen & Proud Daegu

2021 국가안전대진단 2021년 9월 27일(월) ~ 10월 27일(수)/1개월간

내 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합시다!

참여방법

- 1. 자율점검 : 내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
※ 안전점검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2. 생활속 안전신고 : 생활속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세요.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점검내역	점검결과	“아니요” 세부내용 (위치·상태 등)
배관 이음부에 비누를 칠했을 때 거품이 나는 곳은 없나요?	예	아니요
가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관 끝 부분을 금속 헬리캡으로 봉했나요?	예	아니요
보일러나 온수기에 시공 내역이 포함된 표지판이 부착되었나요?	예	아니요
보일러나 온수기의 배기통은 인접 건물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배기통의 이음부는 내열실리콘으로 틈이 없게 막아 놓았나요?	예	아니요
가스를 지하실에서 사용하거나 월 2,000㎡ 이상 사용하는 초·자중차단장치(가스누출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배관 끝에 유출방지 밸브가 있고 소화안전장치(가스누출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의 알고 단는 버튼이 잘 작동 하나요?	예	아니요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와 연결된 가스 검지부 전원 램프가 켜져 있나요?	예	아니요
소방안전		
소화기의 압력노출이 초록색에 위치는 적정하나요?	예	아니요
소화기의 내용(10년)은 초과하지 않았나요?	예	아니요
피난로(안전통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예	아니요
피난로(안전통로)에 장애물이 없거나, 피난로(안전통로)에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했나요?	예	아니요
피난로(안전통로)에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했나요?	예	아니요
피난로(안전통로)에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했나요?	예	아니요

“월세도 못 내고 궁핍, 생계비 지원만 받았어도...”

한계 드러낸 복지 제도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가족·친지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혼자서 죽음을 맞거나 사망 이후에도 찾는 사람이 없는 등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사례는 복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죽음

지난 4월 27일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주택에서 권모(56) 씨는 숨진 지 나흘 만에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방 한 칸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밥보다 술 먹는 날이 많았지만 그는 이웃에 행패 한 번 안 부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주변에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지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이웃은 전했다. 화장실 하나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권 씨는 혼자 생을 마감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는 그에게 좁은 집은 고단한 일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지만, 홀로 쓸쓸함을 삼켜야만 하는 곳이기도 했다.

권씨가 숨진 같은 달,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 우편함엔 며칠 동안 찾아가지 않는 우유와 편지가 열흘 넘게 쌓여 있었다. 집주인은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4월 11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 씨는 숨진 지 11일 만에 발견됐다. 부패한 시신 냄새가 온 집안을 뒤덮었다. 그는 욕조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냄새가 대문 넘어 퍼지지 않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70대 안씨는 4년 전 이사왔다. 이웃들은 홀로 살던 안 씨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억한다. 사망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소문 끝에 조카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방문했지만, 장례비가 부담스러워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관계 단절과 빈곤한 생활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1인 빈곤가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로 빈곤과 관계 단절 등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을 도와줄 복지제도는 '당사자 신청주의'에 매몰돼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권 씨는 코로나19로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뒤 20만원 남짓 한 월세도 못낼 정도로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당시 권씨가 받은 월 평균 임금은 8만원에 불과했다. 한 달에 한 번 일을 나간 셈이다.

결국 그는 구청에 긴급생계지원비를

고독사 대부분 1인 빈곤가구 사회·경제적 위기 '극한 상황'

긴급생계·기초수급 가능해도 당사자가 신청 안하면 못 받아 전문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신청했고, 지난해 8~10월 매달 45만4천900원을 받았고, 마지막 달엔 연료비도 지원받았다. 공공 지원은 여기서 끝났다. 긴급생계지원비는 심의위원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지만, 심의위에 가려면 당사자 신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장여부 안내는 구청의 의무가 아니다.

당시 그는 50만원 보증을 월세로 대신할 만큼 궁핍했다. 연장 여부조차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공공의 관심은 긴급생계지원비에 그쳤다. 권씨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택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한계에 부딪친 복지

장민철 쪽방상담소 소장은 "50대 남성에게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은 매달 70만원 남짓한 금액이다.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 선택 유인이 떨어진다. 자신이 조건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적잖다"고 했다.

고령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안 씨는 사회적 관계가 절실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커녕 충분한 수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씨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돼 매달 73만원(올해기준)을 받았지만 절반은

월세로 빠져나갔다.

행정복지센터는 수급자 중 1인 가구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한다. 건강상태, 거주환경 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안씨가 살던 행정복지센터는 수급대상자 700명에 담당 직원 4명뿐이었다. 정기 모니터링도 1년에 한 번에 그친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은 넘어 지역사회 불행과도 밀접하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은 사회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회복해야 한다"며 "기초 공공부조는 본인이나 누군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혁규 기자 unless@maeil.com



대구 7개구 '무연고 장례 조례'조차 없다

달성군만 최대 160만원 장례 지원 동구·북구, 봉사단체에 위탁 진행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 역시 쓸쓸하긴 마찬가지였다. 대구 대부분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조례가 없다.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화장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 8개 구·군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달성군뿐이다. 지난 4월 달성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저소득주민·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들에게는 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 장례용품 비용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80만원 상당)의 200% 범위 내에서 현금이 지원된다.

달성군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이 나와 장례식장을 찾는 사

람들을 맞이한다.

2017년 10월 동구, 울해 8월 북구도 조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사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에 관한 것으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와 북구에선 달성군처럼 장례식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동구와 북구 관계자는 "장례를 치러도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도 적다. 우리도 봉사단체에 위탁해 간단한 식은 진행한다. 달성군은 무연고 사망자가 적는데, 예산 여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달성군은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0명, 올해는 7명으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달성군은 조례 공포 후 현재까지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명에 대해 장례절차를 지원했고, 올해 예산 3천500만원도 편성했다.

최혁규 기자

“무연고 시신 존엄성 위한 공영장례 필요”

시신처리 건수 5년새 161.9% 증가 혈연 중심 장사법, 장례 못 하기도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대구만이 아닌 전국적 추세다. 지자체 조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2천947명에 달한다. 2016년 1천820명과 비교할 때 161.9% 증가했다.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2조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사법에선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만 규정해 '연고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장사법이 혈연을 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상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직

계비속, 직계존손, 형제자매 순서로 규정된다.

연고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나 동거인 등이 시신을 인수할 경우 장례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현황과 실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이나 내용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고 업무에 대해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영장례를 치르기 위한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단독, 노령, 빈곤 가구에 집중돼 이들의 죽음은 결국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 죽음"이라며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례제도가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제도화했는데, 대구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공영 장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혁규 기자



예선접수 중 9.23.THU · 11.23.TUE

본선 대회 2021.12.23.THU
곽병원 문화공간

치매예방 시니어 가요 콩쿨

60세 이상 대구·경북 거주하는 누구나 (개인 및 3인 이하 단체)

신청방법

- 1)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시지노인전문병원 홈페이지
www.yes-naebumo.or.kr
2) 신청서 및 노래 동영상 파일 제출
이메일: sijinoi@hanmail.net
* 파일명: 참가자명 + 노래곡명

심사 및 발표

- * 예선심사 발표: 2021.11.30. (화)
* 심사: 대구시 가수협회
* 시지노인전문병원 홈페이지 발표
본선진출자 개별 통보

시상 및 특전

- 대상 1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금상 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은상 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동상, 특별상, 최고령상 각 1명
장려상, 인기상 각 3명

접수 문의

시지노인전문병원 홈페이지 접수
전화: 070-8878-9000 (평일 14시~17시)
카카오톡: '시지노인전문병원' 검색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윤경재단이 함께하는 치유인문학 강좌
"나이들의 즐거움" - 김경집(前 카톨릭대학교수)
10월 19일(화) 19시 / 경대 치대학원 강당

주최: 윤경재단 시지노인전문병원, 곽병원, (주) 대구시 가수협회 영남중앙회

이재명 “국힘 방해로 개발 이익 완전히 환수 못해”

‘대장동 의혹’ 야당 탓으로 돌려
“특혜 준 게 아니라 특혜 해소
검찰 조사서 진실 드러날 것”
본선 대비 중도층 공략 전략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4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key man)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며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본선 직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정리하고, 본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미살’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던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가짜뉴스’ ‘도둑의힘’ ‘국민의집’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했던 그가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이번에도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국민의힘과 토건 기득권

세력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며 “개발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특히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며 “민간업체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시지는 이 후보가 사실상 대선 본선 직행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선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본선을 대비해 중도층 공략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만큼 의혹과 관련하여 털어놓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연루 의혹에 “무리하게 역시 맡아달라”며 “팩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 선거 때 도와준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유 전 본부장 등 측



여야, 대장동 현수막 정치 4일 대구 시내 한 네거리에 여야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각각 내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와 ‘퇴직금 50억, 누구 겁니까?’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근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취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홍준표 기자 pyoyya@maeil.com

김기현 “李 국민 기만하지 말고 수사 자청해야”

野, 대선 예비후보직 사퇴 압박
이준석 “이나뎡 상황 오는 건가”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특검 수용과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까지 예고하며 여론전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침내 유동규가 구속됐다. 국민들이 그 내막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신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턱밑까지 왔다”며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

보직에서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부진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청 도지사 사무실, 비서실과 이 후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나뎡’(이재명 나 오면 땀)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력한 이 후보를 비꼬았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금전적 이득이 이 지사에게 전달됐다면 거대한 부동산 비리극의 수혜자 되는 것 아닌가. 그제 나오는 순간 후보 사퇴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나뎡의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여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난다”며 “이나뎡, 박용진 후보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 추미애 후보에게는

별로 기대를 안 한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이 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 후보에게 심자포화를 날렸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부패정치 토건비리 연합과 맞서 싸우겠다는 지나가던 개가 웃었다”고 직격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을 의심하는 국민은 모두 퇴직이라고 한다”고 쓰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제안으로 대장동 의혹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다 국감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국감 파일

대장동 분양대행사 회계감사 ‘의견 거절’

김상훈 의원 “회사 운용 매우 불투명
회천대유 자금 흐름서 역할 밝혀야”

회천대유의 대장동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4일 “회천대유와 관련된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회계법인이 ‘의견 거절’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은 피감업

체가 재정 및 경영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차치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2019년에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또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냈다. 이 회계법인은 ‘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 자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재무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 판단은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대다수 업체가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A사는 ‘한정 의견’에 이어 ‘의견 거절’로 악화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천대유의 주인,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선 A사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회계감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사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maeil.com

이정미 “이재명,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꼬리 자르기”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는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진솔한 고백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됐다”며 “이 지사는 이 사업의 설계과정에 얼마나 개입했고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진솔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지사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택! 나의 길

- 학생정원 200명 → 150명 축소
- 캐나다 주립대학 연계 해외직업과정 운영
- 독일 Festo 스마트팩토리 교육훈련센터 운영
- 직무별 취업 특별반 운영(공기업반, 공무원반, 대기업반, 부산관 및 군무원반, 중견기업반 등)
- 학급당 15명 소수정예 맞춤형 교육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취득
- 전공심화동아리반 운영(전국기능대회 우수실적)
- 전원 기숙사 입사(3인 1실)
- 글로벌 국제교류 및 해외봉사 활동 지원

**2022학년도
금오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2021. 10. 18.(월)~21.(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3.(수)

모집학과 및 인원 정밀 기계과 4학급 60명 입학문의 054 460 0611
자동화시스템과 2학급 30명 054 460 0613
전기전자과 4학급 60명 FAX 054 461 1695

기계·전자분야 모바일 마이스터고 금오공업고등학교

금오공고에 적합한 인력

내신 50% 대입 30% 취업률 93.5%

60%대 인·계성 점사, 인·계성 및 취업 가능

취업희망 교육

노동 인력을 통한 인·계성

최근 취업률 93.5% 취업률 150% 확보

인·계성 30% 이상 인·계성 100% 확보

중·고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도 해본 뒤 대학도 다니고 인·계성

금오마이스터고 취업대학생

이 취업 취업률 100%

취업률 100% 취업률 100%

대장동 특혜에 대한 국민 의견

금오마이스터고라는 선을

사제동행 자민가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숙사 3인 1실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고용환경개선 산업기사 자격 취득

고용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취업희망 교육

시장 출마 VS 중앙 잔류...기로에 선 윤재옥-김상훈

(대구)

'이철우-주호영 모델' 두고 고민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한 3선인 윤재옥(대구 달서구)·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 행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상도 무소속 의원(대구 중남구)의 의원직 사퇴로 안갯속에 빠진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일각에서 '중진 등판론'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3선 임기 중 광역단체장에 출마해 당선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모델을 따를지, 중앙 정치권에 잔류해 5선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李 3선 임기 중 도지사 도전 朱 여의도 남아 정치권 착근

권영진 3선 의지에 출마 주저 선수 비해 낮은 인지도 걸림돌 TK 4선 공천 통과도 만만찮아

것이다.

2017년 12월 당시 경북 김천의 3선 의원이던 이 지사는 경북도지사 선거 자유한국당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듬해 경선에서 같은 당 안동 지역구 3선의 김광림 의원을 접전 끝에 꺾은



윤재옥 의원 김상훈 의원

이 지사는 본선에선 오승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압승을 거두며 민선 7기 경북도지사가 됐다.

반면 2013년 당시 대구 수성구를 지역구 3선 의원이던 주 의원은 이듬해 대구시장 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왔지만 선거를 1년 앞두고 새누리당 대구시장 위원장을 연임하며 불출마 의사를 굳혔

다. 이후 그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지내며 중앙 정치권에 뿌리를 내렸다.

윤재옥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속고 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 모습 이다. 대구시장 출마의 경우 권영진 대구 시장이 최근 3선 도전 의사를 뚜렷하 게 표명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두 사람은 권 시장과의 경선 대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選手)에 비해 다소 낮은 인지도가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이 중앙 정치권 착근(着根)을 시도한다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는 TK 4선 공천 관문이 만만치 않아 보

인다. 주 의원 역시 4선 문턱에서 이른 바 '친박 파동'에 휩쓸리며 컷오프 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 당선됐다. 다음 총선에서 인적 쇄신이 강조돼 'TK 물갈이론'이 다시 불어 닥치면 생환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 분석이다. 이에 차기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TK를 대표하는 중진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택 앞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든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4일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이재명 여당 최종 후보 공격거리 많아 野 호재"

안상수 TV매일신문 '관풍루' 출연 "대장동 의혹·형수 쌍욕 흠투성이"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전 인천광역시시장)가 4일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안 후보는 "흠이 많은 후보일수록 본선에서 공격할 거리가 많아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선 정말 흠없고 깨끗한 후보가 최후의 1인으로 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 당 후보는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소수 일확천금' 특혜 의혹의 설계자, 최종 결재자일 뿐 아니라 형(형수) 쌍욕 녹음파일, 김부선 배우 무상연애 스캔들, TV토론 거짓말(재판 거러 의혹) 등 흠투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1월 5일 이후 4개월 동안 여야 대선 최종후보 간 공방이 있을 텐데 반드시 사필귀정(事必歸正), 파사현정(破邪顯正),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상도 의원의 아들인 거액 퇴직금 논란에 대해선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폄평 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큰 비유를 하자면, 중범죄자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때려 잡으려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종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에 위해 모든 걸 던지겠다"고 강조한 그는 대구경북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내와의 사별 뒤 대구가 고향인 여성과 재혼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제 처가가 대구이니 '대구의 안 서방'이라 불러달라. 영주 순흥 안씨 인 만큼 뿌리도 경북이니 대구경북에서 반갑게 맞아달라"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신공향을 4대 관문공약으로 키워 지역발전 토대로 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권성훈 기자 cdrom@maeil.com

"우파가 하나 돼 좌파독재 청산"

조원진 대표 대선출마 선언 "정치 교체, 정치 혁명" 약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주장해 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4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을 약속하면서 우파가 하나가 돼 좌파 독재를 청산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식에서 "더 이상 국민들을 거짓축복의 노예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 빼앗긴 자유와 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정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과 복권, 명예회복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에서 3선(18·19·20대) 의원을 지낸 조 대표는 탄핵사태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원외정당) 후보로 2017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6위를 기록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손바닥 왕자 해명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논란 더 키워

"사모님 손바닥에妃자 써라" 조롱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손바닥에 한자로 왕(王)자를 쓴 채 잇따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 참석한 후환을 토크로 치르고 있다.

열성 지지자가 응원 차원에서 써준 것으로, 주술적 의미는 전혀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좀처럼 수습이 되지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손가락 위주

로 손을 씻는다'는 등 윤 후보 측의 어설픈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바닥 글씨"가 언론에서 계속 다뤄야 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해프닝인데도 완전히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진행자가 "이것저

것 다 떠나서 윤 전 총장은 손을 안 씻는다. (씻으면) 웬만한 것 지워진다"고 말하자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장 같은 당 홍준표 후보(대구 수성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10번이라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가락만 씻는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받아

쳤다.

여당의 비판은 강도가 훨씬 높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바닥 '왕'자가 지워질까 걱정된다면 살색 투메이프를 붙여라. 사모님 손바닥에도 비(妃)자를 쓰고 똑같이 살색 투메이프를 붙이면 부창부수 쌍끌이로 더 효험이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렵게 조심조심 손가락 위주로 씻느냐"고 조롱했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1 · 등 · 광 · 고 **每日 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 069-05-138135-001 ▶농협 : 703-01-341142 ▶예금주 : 매일신문사

부동산
전원주택/모지
 가장 별장 상권리 전원주택 단지내 대545㎡ 건132㎡ 300년된 고목 한나무 비롯 계곡 긴 정원 11억5천 010)3509)0709
성주 전원주택 황토방과 넓은 정원에 멋진조경 3223㎡(976) 성주 시내인접 매매(개인) 010)7588)1400
다부동 도개온천부근 경치 멋진 전원주택지 661㎡(200) 70만 1,190(360) 65만 010)2616)5000
상가
일반상가
 3층 통상가 서부정류장근 코너 대720㎡ 건11550㎡ 보193400 月692만 총매가26억5천010)3509)6186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부동산
상업지코너 대도로 통상가 3층 보3억 月1500 당3000만 010)3498)6966
황토찜질방 약초농원 포장도로 지하 수, 57,341㎡ 당4만원 010)3843)5314
대지/임야/공장
하양 청천리555번지 외 6필지 1총면적 2112㎡(639) 당 260만 대구인접 주택(개인) 010)6525)2597
상가주택 북지 범어동 213㎡ (64.4)1층 주거지역 동도로 20m 당1850만 010)3509)7789 № 27260-2015-00087 수성구 대경모닝인 최혜국
성서공장 매매 대지1500·대지1000 581)7733 № 27290-2017-00023 달서구청 청림부동산 인증서
화원읍 나대지 준주거 지역 2,640㎡(800) 당480만 010)8582)5810 № 27260-2021-00059 수성구 고령동 이성구

임야 거창읍 장말리 아산 차진임야 면적13,890 매1억 010)3528)3307 № 7-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교회공장부지 현종지리 자연녹지 9,917㎡(3000) 당50만 010)4538)4590
부동산 교환
교환전문 상가·토지·임야 아파트 다량 보유 타물건 교환상담 010)8825)3413

기타부동산
임대 만촌동 창고 겸 사무실 50보2천 月100/매매,청도 모터 650 당15만 분할할 010)5617)6474
주유소 수성구 범어동 대750㎡ (227)건635㎡(192)(전속)도30 x 4m당2100만 010)3509)7789 № 27260-2015-00087 수성구 대경모닝인 최혜국
스크 린골프매매 타석9대, 스크린 2대, 보충용5천/月330 권리금 3억/대형커피수1억매매010)9294)9006

모 집
배달 직
 달원모집 달성군 농공·읍면 소재지,남여노소 가능,정년, 퇴임자, 오토바이소지자 우대 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 임대 남여노소 가능 주부우대 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동 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감성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모집 범어4동일대 매일신문중범 이소지자만 서대명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원모집 시저동, 노변동 지역 남고신 지국 791)3061-010)2873)8885
칠성동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칠성지국 010)6265)2152

배달원모집 동서변동 아파트 010)3545)5413
대명3동 두류동 일대 배달원 급구 남여노소, 오토바 이소지자만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일대 배달원모집 남여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배달원모집 동성지국 남녀 연령 제한없음 422)0017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모집 오토바이소유자 및 승현1·2동거주자 환영 승현 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총무·배달원 모집 남대명지국 초보, 휴학생 우대 656)3122

해산및채권신고(1차)
 당 조합원은 2021년 9월 14일 임시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5일
협동조합마을건축가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가곡1길 97 대표청산인 이상엽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 25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차현호
 위 피고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성욱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627 업무방해
 피 고 인 황규
 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성욱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513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남기웅·송동주·장명주·임종섭·오수일·조남달·이영민·이민우·배태선
 위 각 피고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성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문화 정착의 밑거름입니다.

“文정부, 공무원 재량 박탈·이념지향 정책 강요...실력 발휘 어려워”



최경철이 만난 사람

‘파면 취소 소송 승소’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본관이 선명하게 내려다보이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매일신문 서울지사... 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찔린’ 사람이다. 감봉·정직 등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징계인데 그는 공무원에게 사형 선고라 할 수 있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밝았다. 지난 8월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 명예회복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작음 했을 터. 천성이 ‘굴복’, ‘굴종’,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진형 공무원’이었다.

—무슨 얘기를 해서 ‘찔린’ 것인가?

▶2019년 수백차례에 걸쳐 내 SNS에 글을 올렸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반일 선동 정책,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 등 크게 대별하면 4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어떤 내용이었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요지로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은 전 세계가 우려러보는 우리 원자력 산업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일방적인 반일 선동주의, 그리고 북한에 끌려가면서 결국 한반도에 큰 위협을 안겨줄 대북 유화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왜 이런 글, 즉 정부를 비판하는 ‘간 큰’ 글을 쓰게 됐나?

▶어는 정부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처럼 의도적으로 국가의 여러 축을 망가뜨린 것은 본 일이 없다. 내가 교사 생활도 10년 가까이 했고, 이후 행정 공무원으로 1994년부터 일해왔는데 이런 정부는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말해 하는 것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동만 했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말 이견 아니야”라고 외칠만큼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

▶반일 선동질을 여당의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다.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일까지 벌였다. 외교부 공무원들도 침묵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체부 업무도 아닌데 이런 여러 국정 사안에 대해 왜 문체부 국장이 나서나?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고공단(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 있다. 고공단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자기 부처 업무만 알면서 좁

SNS에 수백 차례 문제점 지적

‘소주성’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정책 원자력 산업 무시...反日 선거에 활용 의도적으로 국가의 여러 축 망가뜨려

2019년 10월 최종 파면 처분

盧 전 대통령 만든 고위공무원단 소속 타 부처 업무 지적인 의무...후회 안해 명예회복의 길 열려...문체부는 항소

정권 바뀌면 울분 터져 나올 것

집권세력 눈치보며 일부 탈원전 동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소연 붓물 중 공산당 미화 ‘공자학원’ 단호 대응을

은 세상에 갇혀있지 말고 더 크게, 더 넓게 보라는 뜻이었다. 다른 부처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해야하는 것이 고공단 공무원들의 의무다. 노 전 대통령이 탁월한 혜안을 갖고 이런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나는 고공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이 정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비판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

▶원래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못 참는 성격이다. 역대 여러 정부에서 나는 줄곧 바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구조 조정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은

1962년 충북 청원 생. 평택고·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8년간 중학교 역사교사 재직. 행정고시 37회 합격. 199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 생활 시작. 2019년 10월 파면 처분. 2021년 8월 파면 취소 소송 승소.

—현 정부 들어 비판적 글로 인해 중징계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예감했다. 전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7월 문체부 체육정책관으로 있던 나는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렇게 이미 ‘찌꺼기’ 상태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글까지 쓰니 대변에 조치가 취해졌다. 2019년 7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

관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9년 10월 최종 파면됐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의 고통도 컸을텐데?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걱정하면서도 잘 참아왔다. 이런 고통이 있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고, 파면될때도 그렇고 후회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옳은 것이었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인가?

▶문제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문제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필요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에서는 ‘개전의 정(뇌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그런데 문체부가 항소를 해 2심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서 승소하면 소송이 끝난다.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이 투덜거리고. 이른바 ‘뒷담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었다. 문체부 요직인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모두 거쳤다. 내가 바쁜말을 잘 하는데 일을 못한다면 이런 보직에 앉히지 않는다.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참여해 뽑는 베스트 국장에도 선정됐다. 상사 눈치만 보면서 살지 않았다. 옳다고 생각하면 상사를 설득했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보나?

▶공무원들은 많은 전문가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준전문가로 대우해야하고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집권세력은 공무원의 재량을 박탈하고 이념지향적 정책을 강요했다. 창의성을 박탈하니 실력이 발휘될 수 없다. 국가적 낭비다. 뿐만 아니다.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는 일부 공무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면서 중요 정책 파일을 지우는 반역적인 범죄 행위까지 했다.

—요즘 선후배 공무원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

▶사석에서 만나면 울분을 터뜨린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하소연을 많이 내놓는다. 정권이 바뀌면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붓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중국이 세우고 있는 공자학원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는 시민운동도 요즘 하고 있다. 왜 이 일을 하게 됐나?

▶대학시절 사회주의 언더터클을 해봤기에 사회주의를 잘 알고 중국 공산당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공직에 있으면서 공자학원을 접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의 폐해가 많다. 이 폐해를 알리고 싶었다. 전국에 39곳이나 있다. 숫자로 따지면 세계에서 3번째로 공자학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미국은 110곳이나 있었는데 40곳으로 줄었다. 공자학원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등 중국 공산주의 선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 좋은 것만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

뉴스쿨 부국장 koala@imaeil.com
사진 이무성 객원기자

1 • 등 • 광 • 고 **每日 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el.(053)251-1234, 080-711-2001 Fax.(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에금주: 매일신문사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251-1234
국내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초혼) 의사·교사 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모집*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73) 동인3기 271-128 TEL. 053-424-5500 FAX. 053-423-6003

알뜰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251-1234
법무사 / 공인중개사 노상석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 상담해 드립니다 (부동산투자, 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경매 등)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78 대구지방법원 옆 문의 053)756-7300 / 010-8674-8840
칠·방수 ※DPI 도색 전문※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폴라톤, 무늬코트,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샤시·판넬** 시공 전문 **철거·조적·설비·타일·도배** 전문 **성진도로**(삼화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30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고화질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삼소자동차 매매상사 승용차·화물차·외제차 중장비 고가매입(허가업체) 년식 2011년 이전차량(수출적극매입) 010-7330-3200 (중고차 수출상담) 010-2740-2900 (폐차, 노후경유차상담)

중고피아노 매일·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112-2(명덕역1번출구)
신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학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운, 액설, 사명, 병명, 임의, 고생하는분, 친정상담, 즉석선지,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지하철 2층 내당역 1번출구/달서구 파도고로 207 파도고 빌딩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654-7145, 010-8566-8497
매일안내 광고문의 053)251-1234 080-711-2001 每日新聞
가발명장 1호 탄생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셀모]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80년 원두환 카페 셀모기발** 010-6250-3899 (국제기능대학 산업학사, 가발명장 중세)

OPERA FESTIVAL 2021. 9. 10 - 11. 7 THE 18TH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2021. 9. 10 - 11. 7 THE 18TH



제 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국립오페라단 제작

삼손과 데릴라

C. Saint-Saëns **Samson et Dalila**
10. 29(금) 7:30pm - 30(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 이탈리아 모데나코무날레극장 |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청교도

V. Bellini **I Puritani**
11. 6(토) 3pm - 7(일) 5pm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태왕 과 함께합니다

주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후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www.daeguoperahouse.org

DAEGU INTERNATIONAL

뒹굴뒹굴...쓰레기장 된 유원지



4일 오전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인근 산책로에 지난 밤 행락객들이 남기고 간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식당·주점 심야 영업제한으로 도심 공원 취식 행위가 늘면서 지자체마다 공원과 유원지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쯤 찾은 대구 동구 한 백화점 푸드코트. 바닥에 표시된 거리두기 안내가 무색하게도 손님들이 먹거리 매대 앞마다 다닥다닥 붙어 기다리고 있다.

다닥다닥...무색한 거리두기



안성환 기자 asw0727@maeil.com·윤정훈 기자

‘대체’ 왜 이러나

르포 연휴 다중이용시설 ‘복적복적’...방역수칙 실종

4일 오후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백화점. 이곳 푸드코트는 점심시간이 한창 지난 때인데도 연휴 마지막 날 쇼핑을 즐기러 온 인파로 붐볐다. 바닥에 표시된 거리두기 안내가 무색하게도 다닥다닥 붙어 대기하는 손님들이 먹거리 매대 앞마다 가득했다. 식당가에는 유아식탁 의자에 아기를 앉힌 5명 이상의 가족도 눈에 띄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대구의 백화점과 유원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몰렸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

백화점 푸드코트·카페에 몰려 붙어앉아 음식 먹으면서 대화

유원지 텐트 안 5명 넘게 모여 마스크 미착용 관리감독 안돼

운데 마스크를 쓰며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이날 찾은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몰려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식당가 테이블과 바닥 곳곳에 거리

두기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용객 대부분은 거리두기를 위해 비워야 하는 좌석에도 나란히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출입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차를 타고 온 이용객 출입 등록은 전화출입명부 안심판을 통해 진행됐다. 주차장 천장에 걸려 있는 안심플 번호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뒤로 밀려 드는 차량 때문에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차들도 있었다. 주차 후 백화점 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땐 별도로 출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외 사적모임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이 더 지

켜지지 않았다.

동촌유원지 근처 금호강 둔치는 연휴 마지막 날 맑은 초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일부 나들이객은 한 텐트 안에서 서로 밀착한 상태로 치킨 등 음식을 나눠 먹거나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텐트 안에 5명 이상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인근 주민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델타 변이나 돌파 감염 등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윤정훈 기자 hoony@maeil.com

방역당국 “임신부 접종 안전...조산·유산·기형아 영향 없어”

8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시작

방역당국은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안전하며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

단(추진단) 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돼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

위험과 감염 시 위중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미국, 이스라엘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 사이의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유사하다”며 “조

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임신부는 오는 8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이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접종은 이달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부스터샷’ 오늘부터 사전예약

고령층·의료진·면역저하자 대상 추진단 “예방 효과 11.3배 높아”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접종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 샷’이 이달부터 고령층과 의료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는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백신을 권고 했으나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등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부스터 샷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시행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추가접종군은 받지 않은 대상군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는 11.3배 높았고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 높았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1·2차 접종만 완료한 대상군에 비

해 18~55세는 평균 중증화(바이러스 억제력)이 5배, 65~85세는 11배 높았다. 추가접종의 이상반응 발생은 기본 접종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됐다.

우선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이달 5일 오후 8시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접종하게 된다.

올해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거주·종사자에 대한 사전예약이 먼저 시작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접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 예약으로 실시하며, 전화 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시 대리 예약 등 예약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대구서 또 ‘병원발 집단감염’

달서구 한 병원서 18명 누적 확진 환자 종사자 간 감염...코호트격리

대구에서 또 한 번 병원이 코로나19 감염원으로 떠올랐다. 달서구톨릭대병원 발발 감염이 수그러든 지 한 달도 안 돼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와 종사자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돌파감염 사례도 이어지면서 병원 내 집단감염 우려가 커졌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지역감염은 67명(해외 유입 확진자 1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오후 8시까지 49명이 추가됐다.

67명 중 15명은 달서구 소재 A병원 관련이다. A병원의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울산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동행했는데, 이후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환자도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 내 환자와 종사자를 검사했고, 이달 1일에는 병원 전체 환자 260명과 종사자 85명 등 34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1일 2명, 4일 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이 병원 누적 확진자는 18명(환자 17명, 종사자 1명)으로 늘었다. 이 중 돌파감염의 심사에는 4명도 모두 해당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병원은 신체가 불편한 외상환자가 아닌 정신병동에 속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 간 접촉 빈도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상에 누워있기보다 복도를 걷는 등 병원 내에서 돌아다니며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점도 감염의 불씨를 키웠다. 최초 확진자는 1인실에 입원했지만 1인실 내에 화장실이 없어 병동 내 공용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에 다른 환자들도 화장실을 드나들며 감염이 전파됐을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A병원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이를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임재환 기자 rehwan@maeil.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0타경 5621	1	동소 509-1 1802㎡	전	547,382,000 547,3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동소 509-2 9861㎡	전		
2021타경 30549	1	동소 산127-7 397㎡	임야	547,382,000 547,38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동소 산127-12 26678㎡	임야		
		동소 산131-12 20826㎡	임야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255 3058㎡	답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0타경 37963	1	달서구 송현동 798-310 142㎡	대	65,053,500 65,053,500	일괄매각, 제의외 건물포함, 토지및 건물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달서구 월배로74서길 68 1층소매점79.32㎡	근린시설 및주택		
2021타경 32989	1	2층주유79.83㎡ 단층보소1㎡	대	641,000,000 641,000,000	근린시설
		5.6㎡ [물건번호1:정원호지분2/11전부]	대		
2021타경 388	2	달서구 한살로6길130, 1동 3층 302호 [대	근린시설	641,000,000 641,000,000	근린시설
		구동, 청솔빌딩주유충출물 208.17㎡ [환원]	대		

[자동차, 중기]

2020타경 38225	1	사용본거지:고령군 덕곡면 백리113-4 등록번호:8509141 차명:봉고111 1년 연식:2016[안번호판영치, 차량키보관[집행관사무실]]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장소:서구상리동295
		사용본거지: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길 6 [성하리] 등록번호:대구78바1034 차명:레스타 연식:2014[안번호판은집행관사무실에보관, 자동차키는채권자[대리인]가보관]	자동차	23,000,000 23,000,000	보관장소:서구상리동295에이치들류내
2021타경 32941	1	사용본거지: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길 8 [성하리] 등록번호:대구78바1008 차명:유니버스 연식:2011[안번호판은집행관사무실에보관, 자동차키는채권자[대리인]가보관]	자동차	28,000,000 28,000,000	
		사용본거지: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길 8 [성하리] 등록번호:대구78바1008 차명:유니버스 연식:2011[안번호판은집행관사무실에보관, 자동차키는채권자[대리인]가보관]	자동차	28,000,000 28,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현상부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당첨된 채 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는 공채가나 지급보증취득금액을 제외한 민사당첨 보증서를 준비해야 함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④ 입찰행위의 투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정해지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함
⑤ 최고가매수인이고 차순위매수인인 경우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결과 증명되는 즉시 반환함
⑥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⑦ 주: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섹션]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과제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화하거나 성인이 하고, 대공판결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의 관여하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친매각결정서 등 문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태완

“연호지구 인근 연못 4곳 생태공원으로”

수성구청 120억 투입 조성 박차 지구 개발 맞춰 수변공간 활용 기관 협의·주민 의견 청취 완료 후년 보상 시작, 2024년엔 착공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삼덕동 일대에 조성되는 연호주택지구 인근 연못 4곳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된다.

수성구청은 4일 “120억원을 들여 연호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있는 연호지, 연호내지, 이천내지, 당현지 등 연못 4곳의 수변공간 총 12만9천889㎡ 부지를 수변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맞춰 이들 연

못을 공원으로 조성, 생태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하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계획안에 들어있는 연못 4곳 중 연호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이며, 나머지 3곳은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예산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 약 1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구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우선 시설개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공원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구의회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뒤 2024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LH가 조성하는 공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못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왕 만들 공원이면 수성구를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공원 조성 계획은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대명유수지 따라 은빛 물결 4일 대구 달서구 대명유수지를 찾은 시민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경북교육청, 동양대에 ‘정경심 연구비’ 환수 요청

정 교수 상고심 판결 전에 조치 ‘미반환 뎀 1~2차 독촉 나설 것’

경북도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보조금 불법 사용 등과 관련(매일신문 2월 10일 자 8면 등),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했지만,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환수 조치

에 들어간 것이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동양대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등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인 32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동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정 전 교수(2021년

8월 31일 자 면직)가 진행한 ‘영여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연구비 1천200만원(전액 국비)을 지원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당시 A씨 등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수당으로 320만원을 지급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12월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추가 제출을 요청, 지난 2월 받은 동양대 제출결의서를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 160만원(총 32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계약에 따라 대학에 지급한 지원금 일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하여금 환수토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1·2심 판결과 조사에서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환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미반환 시 1~2차 독촉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전국체전 밝힐 성화 도청서 출발 MZ세대 경북 공무원이 첫 주자

776명 102개 구간 1천13km 돌며 코로나 위기 극복·상생 발전 다짐

102회 전국체육대회(8~14일)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25일)를 알리는 성화 봉송이 시작했다.

경상북도는 4일 도청에서 성화 봉송 출발식을 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전날 강화 마니산 참성단(전국체전)과 구미 금오산(장애인체전)에서 각각 채화된 성화는 대회 개최지역을 돌면서 희망 메시지를 전한다.

도청을 출발한 성화는 776명의 주자에 의해 102개 구간(1천13km)에서 봉송된다. 전국체전은 8일, 장애인체전은 20일 구미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성화대에 각각 점화된다. 102구간은 제102회 전국체전을, 1천13km는 경북 10개 시와 13개 군 행정구역울 상징한다.

이날 성화 봉송 출발식은 구미무용농악보존회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전달, 성화 합화, 최초 주자들의 성화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최초 주자는 올해 경북도와 구미시에 신규 임용된 MZ세대 공무원이 맡



4일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전국체전 성화봉송 출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았다. 한국 체육 새로운 100년의 출발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다짐하는 대구경북 특별봉송, 시군별 역사와 문화·정체성을 담은 ▷경주의 신라왕 행차 재현 ▷상주의 자전거봉송 ▷울진의 요트 봉송 등 이색봉송도 계획돼 있다.

경북도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 전국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년 순연하고, 대회 축소로 고등부만 참가하는 등 우려곡절 끝에 이번

에 열린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상주·군위·포항 암각화 英 전문지에 실려

5년 전 ‘울산 반구대’ 이어 두 번째 상주 유적 세계적으로 소개 처음

경북 상주 낙동 물랑리 암각화(2020년 11월 13일 자 10면 등)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발행하는 고고학 전문지 ‘아케오프레스’(ARCAEOPRESS) 인터넷판에 소개됐다.

아케오프레스는 5년마다 전 세계 암각화 연구와 보존 동향 등을 모아 출판한다. 올해에는 ‘세계의 암각화 동향 6집’(Rock Art Studies: News Of The World VI)이 출간됐는데 여기에 물랑리 암각화가 소개됐다.

이 고고학 전문지에 한국 암각화가 소개된 것은 2016년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상주 유적이 세계적으로 소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번에 소개된 한국의 암각화는 상주 물랑리 암각화, 군위 수서리 암각화, 포항 신진리 암각화 3곳으로 모두 철기시



상주 물랑리 암각화의 얼굴 가면 형상.

대 유적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9쪽 분량으로 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석호 박사가 썼다.

상주 암각화는 제단같이 생긴 수직 바위의 가로 5.4m와 세로 2.1m 표면에 두 명의 사람과 두 개의 얼굴 가면 등 모두 20점의 형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

장석호 박사는 “중국 내몽골의 바이차허를 비롯해 극동, 몽골, 시베리아 등 내륙 아시아 등지에서 발견된 얼굴 가면 형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해볼 만 하다”고 했다.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에어컨, 냉난방기, 온풍기, 제습기, 이동식에어컨 전품목 도매가격 판매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캐리어에어컨

올겨울에도 전기료 걱정 없는

“캐리어 에코그린 인버터 냉난방기”가 정답입니다.

에어로 18단 에어컨 / 제트 18단 에어컨

냉난방기 라인업

자연기습·명품 공기청정기 / 미니 공기청정기

인버터 하이브리드 보일러 시스템

10월 고객 사은 할인판매 방문 상담시특별 할인가 적용

초절전 인버터 기술의 원조

캐리어에어컨

대구 보성총판

창고형 매장 : 대구 서구 이현동 42-578
상담전화 053-566-8016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청신호'

기계·전자 모바일 마이스터고 금오공고 잇단 산업인재 배출

북지부 의사과학자 양성 범부처 협의체 발족...연말까지 전략 마련

경북 포항시가 주요 현안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은 의사과학자 양성이 주된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향후 연구중심대학 설립에 정부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사과학자 양성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

생명의학 세계적 기술력과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운영 바이오 메디컬 선도 최적지

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과제는 ▷의학과 이·공학 융합 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의과대학평가 개선 ▷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의사과학자 진로 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 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포항시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세계 3번째로 설치, 운영 중인 포스텍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의사과학자(MD-PhD, Medical Doctor-Philosophy Doctor)= 의 사면서 소지사이면서 과학연구에 집중하는 과학자로서, 치료제·백신 등 신약개발, 난치병 극복 등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도 KAIST나 G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연구중심대학 허용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지부의 범부처 협의체는 지난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개 과제별 실무 회의를 거쳐, 12월 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희철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의사과학자의 육성은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이다"라며 "하지만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이후 의사과학자들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군 복무, 고용 및 진로 문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전략을 마련해 첨단의료로 선도하는 연구의사들이 확대 배출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전국 첫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영향 18~22일까지 2022년 신입생 모집

기술·기능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기계·전자분야 모바일 마이스터고인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금오공고)가 산업 분야의 핵심인재를 길러내 주목받고 있다.

금오공고는 1973년 개교해 1만6천124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2017·2018·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탑과 은탑(2회)을 수상하고, 2022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2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북기능경기대회에서 9년 연속 종합우승을 하는 등 기술·기능인 양성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개 직종 15명의 선수가 경상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금오공고가 산업 분야의 핵심인재를 길러내고 있는 것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고교학점제 등이 한 몫을 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재학 중 전문학사 수준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금오공고는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고교학점제는 정밀기계과,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전자과에서 1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

학기까지 주전공을 선택·이수하고, 3학년에도 다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오공고는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에도 중점을 두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영마이스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고 투게더(Go Together)' 하는 교육 현장에서 공유가치창출(CSV), 무학년제 교육과정운영, NCS 교육과정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검증, 글로벌(캐나다) 직업교육, FACT 공동훈련센터 구축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밖에 금오공고는 학생의 인성교육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관악부와 사제동행 자전거 국토종주, 다양한 동아리(방과 후) 활동과 체험,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존감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 두 해피 투게더(Do Happy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교맞이 작은 음악회, 감성을 담은 플래카드 공모대회 등을 열었다.

금오공고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김재천 금오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는 HELP-4U 프로젝트를 통한 맞춤형 취업전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maeil.com

경북도, 인삼농가에 인삼 1채당 2천원 지원

인삼값 폭락으로 인삼재배농가들이 어려움(매일신문 9월 25일 자 2면)을 겪자 경북도가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4일 경북도와 인삼농협 등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인삼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인삼 1채(750g)당 2천 원씩 총 50만채에 10억 원(도비 3억 포함 시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4일 권현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과 경작자들을 만나 여러 어려운 점을 듣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경북도의 지원 소식에 도내 인삼재배 농가와 풍기인삼농협도 반기고 있다. 풍기인삼농협은 자체 구매 계획을 세우고 농가 지원에 나섰다.

권현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도내

인삼재배농가에서 생산한 인삼 54만5천채(인삼조합 조사)를 전량 구매할 계획을 세웠다"며 "부족한 냉동시설은 임대해서라도 전량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농 김유섭 씨는 "인삼값 폭락으로 사지에 내몰린 인삼산업 기반을 경북도와 자치단체가 살렸다"며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도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현재, 산지 원료삼(파삼)은 1채당(750g) 8천~9천원선으로 코로나19 이전 1만4천~1만6천원보다 6천~7천원 가까이 떨어졌고 수삼(고급)은 1채당 1만3천~1만7천원으로 이전 2만원~2만5천원보다 7천~8천원이 하락, 생산 원가 60%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마경태 기자 kdma@maeil.com



울진 왕피천 공원 '가을 마중'

경북 울진의 왕피천 공원이 가을색으로 물들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조성된 '핑크몰리' 군락지는 해가 갈수록 그 화려함이 더해지고 있다. (왼쪽) 또 핑크몰리 군락지와 함께 가을을 상징하는 '펄파스 그라스'도 어우러져 가을 사진명소로 더할 나위 없는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상원 기자 seagull@maeil.com 울진군 제공

의성 영남제일병원 인공신장실 운영...24시간 전문의 응급서비스

예천·군위 신장질환 주민도 이용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영남제일병원이 4일부터 인공신장실을 운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안계 영남제일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가톨릭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신장 투석 전문의와 인공신

장전문 간호사를 초빙했다. 아울러 인공신장실 운영을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미국 Baxter사의 최신 기종인 Artis Physio Plus 인공신장기와 테라노바400 혈액여과기를 구비해 혈액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과 보건소, 영남제일병원 등에 따르면 의성 지역에는 120여 명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와 당뇨를 앓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이 안동과 상주, 대구 등지 병원의 인공신장실을 이용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안계 영남제일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365일 24시간 전문의를 통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시에도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의성 지역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제일병원 관계자는 "안계 영남제일병원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의성군은 물론 인근 예천, 군위 일부 지역의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신장 클리닉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희대 기자 hdllee11@maeil.com

심의원번호 : 제151023-중-29959호

홈페이지 대구유림한의원

성기능 저하

발기부전·조루·성욕감퇴
피로·지구력 부족·낭습·수족냉증·정액결핍

무리한 성생활로 신휴하면 건망, 불면, 현기증, 이명, 오심번열, 무기력, 자신감 결여 등이 올 수 있다. 몸이 피로하고 성기능이 떨어지면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 말고 조기치료를 하시오. 43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력증강과 피로를 풀어 신기를 튼튼히 하여 성생활 개선은 물론, 건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립선염·비대

야간뇨·빈뇨·잔뇨·무력뇨·급박뇨
유뇨·회음부통

소변의 고통이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괴롭지만, 치료는 잘 안되고 특히, 전립선염은 재발까지 잘 된다. 치료를 게을리 하면 신·방광 등이 나빠질 수 있으니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43년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원인과 증상을 면밀·분석하여 허한 신기를 도와 소변의 불편은 물론 성기능 저하도 개선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감퇴된 성욕과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 조루치료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생활의 활력을 **유림한의원**에서 찾으십시오.

유림한의원 원장 조 남 학 대구 남구 대봉로 19길 20-2(구.남도극장 앞) 상담문의 **053.474.5166**

無에서 有 창조 '영일만의 기적'...50년 만에 성장세 꺾여

<상>산단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이자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성장 불꽃이 사그라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64.5%를 수출이 차지하고 수출의 97.7%는 제조업이 차지한다. 그리고 제조업 수출의 74.7%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1천200여개 전국 산단의 총 생산액은 949조원이다. 2017년 1천666조원을 정점으로 2018년 1천566조원, 2019년 991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844조원 이후 최저치이다.

◆구미 지난해 선정, 포항 재도전

올해 상반기까지 통계에선 생산액과 가동률 고용 수출 전반적인 지표들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개선되고 있지만 등에 있지만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제조업 환경에서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산단들이 예전의 활력을 찾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산단대개조' 사업이다.

국가산단을 포함한 전국의 산단을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지역으로 묶어 스마트화 및 친환경 산단으로 대대적으로 개조해 제조업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융복합 혁신 등을 통해 산단과 주변지역의 제조·근무 입지를 강화하고 산단을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선도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전국 5개 지역이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기계·전자·섬유·뿌리산업 등 각 산단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미와 함께 지난 반세기 국가 기간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경북 포항은 올해 대상 선정에서 탈락 후 내년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한 번에 5개 지자체씩, 모두 세 번의 공모를 추진하는 계획이라 내년이 마지막 3차 공모이다.

◆50년 전 시작된 '영일만의 기적'

지난 1968년 동해안의 작은 어촌 포항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 불리는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이 설립되면서 공업입국의 위대한 서막을 알렸다.

영일만을 끼고 있는 포항은 대량의 철강 원자재를 조달하기 편한 항만을 건설하는데 유리하며, 넓은 공장부지 등을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평가받았다.

'포항철강공단20년사' 등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현 포항제철소의 태동에 발맞춰 연관공업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철강산업단지'가 1967년 국내 최초의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조성되면서 포항의 도시 성장을 이끈 것은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됐다.

'선조들의 피 값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어서 속죄하자'던 고 박태준 회장의 우향우 정신으로 지어진 포항제철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포항에서만 4기 준공에 910만 생산체제의 완성에 이어 광양제철소의 연이은 증설을 통해 1973년 416억원이었던 매출은 2017년 28조5538억원으로 686배로 늘면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 철강사에 '영일만의 기적' 신화를 써나갔다.

포항제철의 조성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시설 조성 및 부품 생산 등

1968년에 종합제철소 설립 공업입국 위대한 서막 열어

철강경기 침체·노후화 겹쳐 생산액·고용인원 지속 감소 내년 개선 사업 선정에 사활

상호 협력, 보완적인 역할을 할 포항철강산단은 지난 1967년 포항공단 조성사업이 지정된 뒤 1970년 당시 포항제철(현)이 단지조성에 나서 1972년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1974년 청림지구를 조성됐고, 1992년 2단지, 1994년 3단지, 2006년 4단지가 연이어 준공되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1970년 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평균 76%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철강공단 관계자는 "철강공단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단시간 내에 철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으며,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등 우리나라 공업의 소재를 제공하며 고도성장을 이끈 견인차이자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포항철강산단 1~4단지과 청림지구의 총 면적은 1천318만㎡(약 400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입체철강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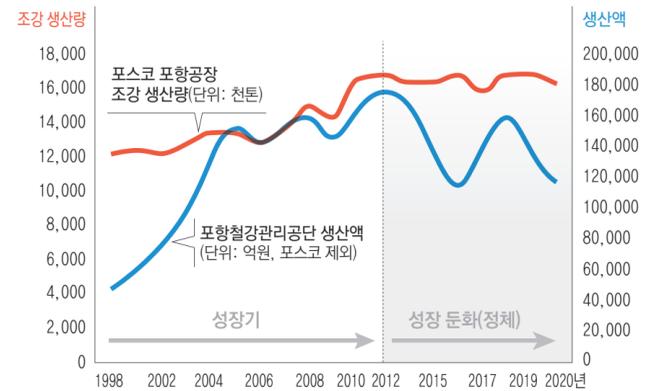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DB



지난 1970년 고 박정희(가운데) 전 대통령과 고 박태준(왼쪽) 포철 회장이 포항제철 착공식에서 착공 단추를 누르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포항본부)



단지이며, 올해 7월 현재 359개 업체가 입주해 313개가 가동중이고, 근로자는 1만3천754명에 이른다.

◆성장 한계에 새로운 도전

1세대 산단적인 포항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났다. 정부에서 30년 이상된 산단을 일단 노후 산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노후도가 심각하다.

포항산단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급속한 산업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로 철강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발 공급과잉,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 환경규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철강업의 노쇠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철강산단은 최근 철강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생산액과 고용인원이 지속 감소하는 등 노후화 증상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공장의 조강생산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2012년을 전후해 정체를 보이고 있고 인접 포항철강산업단지는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7월 가동

현황에 따르면 입주 공장 359곳 중 313곳이 가동 중이며 휴·폐업한 곳은 11곳에 이른다.(나머지 35곳은 건설 중)

한국은행 포항본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포항철강공단의 총생산액은 지난 2011년 17조8천860억원에서 2015년 13조7천680억원, 지난해 11조6천66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9년 만에 6조2천여억원(35%)이나 줄었다.

지난해 총 수출액도 24억3천560만달러로, 2015년 32억5천700만 달러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2011년 50억6천100만달러와 비교 하면 절반 이하로 격

감했다. 고용상황도 2011년 1만6천534명이던 근로자는 2015년 1만5369명, 지난해 1만3천908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9년 사이 2천6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포항철강산단을 떠났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애플이 포항에 중소기업 R&D 지원센터 입지를 결정했다. 포항 산단을 거점으로 경주·영천 지역을 연계한 포항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추진되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호 기자 dhkim@maeil.com

함께하는 세상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지역경제, 지역민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했던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랑의 실천을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이겨냅시다!

기업협찬광고

NH

지리산 마천농업협동조합



지리산마천농협 취즙 珍

NAVER 웰빙프렌즈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지리산 마천농협에서는
야생 취를 48시간 이상 추출 과정을 거쳐
취의 영양분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리산 근교에서 나오는 **야생 취**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제품구성은 늘리고 **UP** 가격은 내렸습니다. **Down**



진한취가 느낌이 다르다!

30포+30포+30포= 1박스 더! 총 4박스 60,900원

지금 구매하시면 **건 취** (국내산 100%)
한 봉지 (100g) **추가 증정!**

홈쇼핑 방영 대박상품!!



야생 취를 통째로!
취뿌리추출액100%, 고형분7%

생취에는 사포닌, 철분, 니아신, 비타민B1, B2,
비타민C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 가사일로 피곤한 아내에게.
- 건강 생각하시는 부모님
- 야근으로 지친 남편에게.
- 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 공부로 지친 아이에게.
- 건강식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제품구입 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 주문가능) **1899-3570**

농협 / 351-1177-4308-83 **모던산업(주)**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할부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게되는 100% 국내산 재첩진국!

20인분(500gX10개입) 62,800원

40인분 (500g X 20개입) 120,600원

3대째 내려오는 전통의 맛!



농협 생신물배상 책임보험가입

- 아침 저녁 담백한 국물이 필요할 때
- 입 맛이 없어 별미를 찾으시는 분
- 과한 음주로 해장이 필요할 때
- 속이 불편해 자극적인 음식을 못 드실 때



식품안전관리인증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였습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
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

NAVER 웰빙프렌즈

전국무료배송!!

갑작스런 식사준비, 여행, 캠핑, (음주시에도 좋습니다)



간편한 국내산 재첩국

기타 수산물가공품 (7월하여 성취하는 냉동식품)

섬진강자연재첩수산
SEOMJINGANG NATURE FOOD

제품구입 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입금계좌 / 농협 351-1177-4308-83 모던산업(주)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할부 / 전국무료배송

지리산 마천농협 발효 흑마늘

흑마늘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마늘... 가정에서 만들어 먹자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은 다른 첨가물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국내산 마늘로 진심을 다 하여 만들었습니다. 발효를 하며 맛이 더 깊어져 어린이부터 중,장년 어르신들까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의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1통 : 300g (국내산 갠 마늘 100%)

1세트 (4통) : **99,800원**

2세트 (8통) : **189,800원**



NH농협손해보험



웰빙프렌즈 검색

제품구입 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문가능) **1899-3570**

입금계좌 / 농협 351-1177-4308-83 모던산업(주)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할부 / 전국 택배 무료 배송

DGB Index (1일)

코스피	3,019.18	(-49.64P)
코스닥	983.20	(-20.07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1.633	(+0.040%P)
환율 (원·달러)	1,188.70	(+4.70원)
금값 (1g)	66,930	(+76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 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증권인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연계서명 입력할 때21-151호 (2021.04.01~2022.03.31)

"한발 빠른 뉴스"

QR코드: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 앱, 아이폰용

대출 가뭄에 신용 한도 2억 7천만원...돌풍 일으키나

toss bank 영업 시작

기간 금액 무관 2% 예금이자 사전신청 고객 100만명 돌파
간편송금 가입 2천만명 넘어
당분간 총량관리 빠질 수도

2천만명의 앱 사용자를 등에 업은 인터넷 은행업계의 기대주 '토스뱅크'가 5일 공식 출범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운 가운데 기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추세와 맞물려 돌풍이 예상된다.

토스뱅크는 K뱅크,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시작으로 지난 2월 '토스증권'을 선보이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토스는 지난 8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2천만명을 넘긴 상태며, 토스뱅크 역시 별도의 앱이 아닌 기존 종합금융플랫폼 토스 앱에 탑재된다.

토스뱅크는 출시 초기부터 파격적인 혜택으로 이용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

다. 지난달 가입 기간, 예치금액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을 예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일 기준 뱅킹 서비스 사전신청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시장 반응도 뜨겁다.

토스뱅크는 아울러 체크카드도 전월 실적 조건 없이 매달 최대 4만6천5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외에서는 사용금액의 3%를 즉시 캐시백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내년 1월까지 송금, 현금인출기(ATM) 수수료도 무료다.

토스뱅크가 5일 공개할 신용대출 상품 역시 타 은행에 비해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앞서나가는 공격적인 수를 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지난달 일괄 '5천만원까지'로 축소했고, 카카오뱅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앞서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는 연 2.76~15.00%, 최소 100만원 최대 2억7천만원으로 공시했다. 주요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낮아도 3~4%대에서 시작하는 데다 최대 한도가 연봉 혹은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토스뱅크의 공격적



악어백 50~80% 할인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은 명품 악어백 브랜드 '호미가'의 시그니처 가방인 악어가죽 샬롯백을 비롯해 인기 타 조백 등을 50~80% 할인 판매하는 고객 감사제가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대구백화점 제공

마케팅이 먹혀들 판은 깔린 셈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첫해인 것을 감안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도 당분간 빠질 수 있을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소상공인 전용대출 상품도 개발 중이며, 영업 시작 이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보일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토스' 개발사 비바리퍼블리카가 3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지분 10%씩을 보유하고 있다. SC제일은행(6.7%), 웰컴저축은행(5%)도 주요주주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금호위터폴리스 산단 '안광학산업 집적지' 분양

3.3㎡당 450만원, 원가 10% 인하
K-아이웨어 스트리트 쇼룸 조성

'대구 도심 내 마지막 복합산업단지' 금호위터폴리스가 3차 분양에 돌입한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4일 북구 검단동에 조성하는 금호위터폴리스 일 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3차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규모는 39필지 6만3천여㎡다. 제조시설용지 38필지 6만여㎡, 복합용지 1필지 3천여㎡다. 유치 업종은 신소재,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이다. 복합용지 유치 업종은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지식·문화·정보통신업이다.

특히 이번 분양에서는 메카트로닉스 업종 내 18필지 2만7천여㎡를 안광학 산업 집적지로 조성한다.

안광학산업 집적지는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완제품 제조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안광학산업 기업의 브랜드 쇼룸을 건물 1층 전면부에 설치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아이웨어 스트리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광학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이외 제조시설용지 업종별 공급규모는 신소재 7개 필지, 전자정보통신 7개 필지, 메카트로닉스 4개 필지, 자동차

및 운송장비 2개 필지 등이다.

공급 제조시설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최소 1천107㎡부터 최대 2천82㎡로 다양한 수요에 맞게 구성됐다. 분양 기준 가격은 조성원가(500만2천원/3.3㎡) 대비 10% 인하(450만2천원/3.3㎡)했다.

금호위터폴리스 3차 산업용지 입주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도시공사에서 현장 접수한다. 대구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금호위터폴리스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해 내달 2일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나 금호위터폴리스 홈페이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HAUZENT 하우젠트

건설명가 한라공영

중소규모 재건축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남다른 기술과 노하우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원 실익을 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재건축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적으로
 최고 프리미엄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이름, 한라하우젠트가 성공의 길을 함께 걸겠습니다.

중소규모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라공영의 역량을 집중합니다!

- 소규모재건축 150세대 이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10,000㎡ 이하
- 중규모재건축 300세대 이하

재건축 전문분야의 컨설팅을 통한 완벽한 업무지원

- 기본계획 (안건승인)
- 추진위 결성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시행인가 관리처분
- 금융업선
- 일반분양

성공적인 재건축 수주실적

- 반려 한라하우젠트 파스타(파스타) 입주완료
-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2(파스타) 2021.12월 입주예정
- 대명동 기린주거환경사업 (시공사 선정)
- 동촌지구 소규모재건축 (진행중)
- 활성지구 기린주거환경사업 (시공사 선정)

Halla (주)한라공영 문의전화 053.753.1870



대구신세계가 오는 17일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신세계 제공

대구신세계 "엔택트 이탈리아 여행 즐기세요"

10월 연휴 맞아 테마 기획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탈리아의 생생한 풍경, 문화, 음식 등을 대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대구신세계는 오는 17일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신세계는 개천절·한글날 등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고객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메인 테마를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로 잡고, 문화·갤러리·각 매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는 문화·갤러리에서부터 만날 수 있다. 먼저 문화·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우피치 미술관' 전시에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품을 초대형 스크린에서 4K급 화질로 볼 수 있다. 우피치 미술관은 미켈란젤

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역사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별도 입장권 없이 문화홀에서 앉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화홀 맞은편인 갤러리에선 매그넘 소속 작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이탈리아의 풍경을 담은 사진전 'SCENE FROM ITALY'가 진행된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진가 그룹 중 하나인 '매그넘 포토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기치 아래 20세기 포토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는 팝업스토어도 진행된다. 지하 식품관 행사장에서 이탈리아 와인과 올리브오일, 파스타와 같은 식재료가 있는 팝업스토어가, 패션층에선 골든구스·페트레이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의 팝업스토어가 있다.

변선진 기자 bsj@maeil.com

중장년, 내 직업 내가 만들기 3기 창작학교 7일 첫 수업

대구시는 중장년(만 40세~69세)의 평생직업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 '내 직업 내가 만든다' 중장년 일자리 창작학교 3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창작학교 3기는 고용이 저조한 시대 구직 대신 평생직업으로 중장년이 창작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 중 하나다. 창작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관심분야로 직업을 삼는다는 의미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장년 일자리 창작학교 3기에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접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어 중장년 일자리 부족과 선호 직업의 mismatch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중장년 일자리 창작학교 3기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0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창작의 대두·창작 방법·사례·창작 멘토링 등이다. 참가신청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창작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 창작자에게는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호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장은 "대구시 중장년 일자리 창작학교가 코로나19로 일자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장년 구직자에게 새로운 직업발굴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신약 후보물질 22개·기술이전 17개...암·치매 반드시 정복한다

'수술실·병실 스마트화' 기술 개발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 시즌2에서는 때론 수술실의 긴박한 장면과 밖에서 마음 졸이는 가족이 등장한다. 수술실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의사, 그리고 환자의 희로애락을 그려 낸 슬의생은 큰 인기를 얻었다.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변하는 오늘, 대구침복재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침복재단)이 연구하는 의료기술로 미래 수술실을 슬의생과 함께 예측해본다. 슬의생 주인공 이익준(조정석 분) 선생님과 욕심발만한 미래 의료생활을 알아보자.

◆신약 개발로 암, 치매 극복 도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인은 위·갑상선·폐·대장·유방·간 순으로 암 발병률이 높다. 치매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만큼 국가적인 관심사다.

현재 의료기술로 암과 치매는 정복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구침복재단은 꾸준한 신약 연구개발로 불치병·난치병 극복에 도전하고 있다.

대구침복재단이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은 모두 22개다. 이외에 지금까지 기술이전된 후보물질도 17개에 이른다.

지난 2016년 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뇌암치료제, 치매 억제제, 간암 표적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물질 등을 기술이전했다.



대구침복재단 연구진이 신약개발을 연구하는 모습.

대구침복재단 제공

집속 초음파로 뇌혈관장벽 일시 개통 파킨슨병·치매 등 뇌질환 치료 연구
카메라 이용 비대면 호흡·맥박 측정 간호보조 협동로봇 제어기술 개발중
3차원 혈류 가시화 기술 상용화되면 뇌경색·뇌출혈 예방 진단도 앞당겨
뇌신호 말초신경 전달하는 기술 연구 안정적 신호 공급 보철기 개발 성공



대구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연구진의 동물 수술 장면.

대구침복재단 제공



대구침복재단 의약생산센터 연구진. 대구침복재단 제공

글로벌 신약의 첫걸음을 재단이 내디딘 에피소드도 있다.

대구침복재단 연구진은 2014년 (주)제노스코에 무상으로 분자설계를 지원했고, 연구진 코칭을 받은 제노스코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 (주)유한양행에 기술이전을 했다. 연구를 계속한 유한양행은 2018년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안센에 1조4천억원 규모의 폐암치료제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한다.

특정 질환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물질을 설계하는 연구방법인 분자설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분자설계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재단은 최근 AI를 활용한 분자설계 방법을 연구하는 등 수준 높은 분자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침복재단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의 기술수출을 하기도 했다.

재단은 2017년 보로노이(주)에 치매 치료제 물질을 기술이전했고, 보로노이는 이를 발전시켜 올해 미국 '브리켈 바이오테크'에 3천800억원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기술이전했다.

◆파킨슨병도 이 기술만 있다면

슬의생에는 뇌 수술 권위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파킨슨병은 가벼운 손 떨림으로 시작해 점차 움직임이 둔화하고 몸이 굳는 무서운 질병이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운동능력을 조절하는 물질 도

파민을 만드는 뉴런이 손상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의 뇌는 뇌혈관장벽 때문에 약물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뇌혈관장벽을 열어 약물을 얼마나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등 뇌질환을 정복하는 핵심인 이유다.

대구침복재단은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 뇌혈관장벽을 국소적, 일시적으로 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돈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초음파 에너지를 치료에 필요한 특정 뇌 영역에 집속(Focused)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재단은 최근 뇌혈관장벽 개통 시 기계적 자극을 추가해 뇌 내 약물 전달량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

재단은 또 지난 4월 5년간 20억원이 투입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그간 뇌혈관장벽 개통이 어려워 임상에 실패한 치매 치료제를 재단의 기술을 이용해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가상현실 연구'로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기도 하다.

치매 환자는 친숙한 상황을 연구로 만들어 병세를 완화하는 연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꾸준한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재단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치료제로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지난해

한 기업과 치매용 디지털치료제 연구를 시작했고,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디지털치료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부담 더는 스마트 병원

슬의생에서 간호사는 늘 바쁘다. 항상 환자의 체온과 혈압 등 기본 상태를 측정해 차트에 정리한다. 환자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기 위해 중요한 작업으로 폐 시간이 소요된다. 환자의 상태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데이터가 보기 쉽게 정리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남은 시간은 환자가 필요한 부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면 의료 질도 높아진다.

대구침복재단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수술실과 병실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환자와 접촉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호흡과 맥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술은 개발 중이다. 카메라와 전극마져 없이 맥박을 측정하는 기술도 연구 중이다.

수술실 내 간호사의 복강경 카메라 위치 보조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 보조 협동로봇 제어 기술'도 개발 중이다. 수술 집도의를 보조하는 로봇이 의사의 시선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초소형 무선 체온계도 개발하고 있다. 초소형 체온계를 환자에 부착해 체

온을 재고 심전도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고도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술실 내 동선과 음향을 추적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집도의 등 사람 인식과 실시간 위치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해 집도의 음성 인식을 높인다. 수술실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지휘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부정확한 심장 박동 환자를 대상으로 목속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슴 대신 허벅지 대동맥 혈관을 압박하는 혈액 순환 의료기기도 개발 중이며, 척추 CT 사진을 3D로 재구성해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척추 추출 플래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환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영상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큰 종양이 보이네요". 슬의생 의사들은 환자에게 CT나 MRI 사진을 보여주며 증세를 설명한다. 그러나 환자에게 까맣고 하얀 의료 사진은 낯설게 보일 뿐이다. 의사조차 촬영 위치나 각도에 따라 증세를 놓칠 수도 있다. 의료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증세를 판단하는 능력에서 의사의 역량이 결정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구침복재단은 의사도 환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의료영상 혁명'을 준비 중이다.

재단은 4차원의 흐름까지 촬영되는 '4D Flow MRI'를 이용해 3차원적으로 혈류를 가시화하고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위상차(Phase Contrast) MRI를 기반으로 2차원 단면의 흐름을 정량화하는 기술은 임상 단계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혈류의 3차원 가시화는 관련 소프트웨어 부재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D Flow MRI를 이용한 선진 임상 연구가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심뇌혈관 질환 진단처럼 민감도가 높은 혈류역학적 인자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피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영상 수준이 극도로 정밀하다는 뜻이다.

재단의 3차원 혈류 가시화 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어느 부위에서 피가 느껴지는지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예방 진단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추후에는 심뇌혈관 질환 진단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 가능하다.

◆인공팔기-뇌 잇는 신경전달 연구

인공 팔다리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뇌가 주먹을 쥐고자 했을 때 인공 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힘든 것을 해결하는 문제다.

신경전달 연구는 뇌졸중, 파킨슨 환자에게 필요한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우울증, 뇌전증 환자 등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차세대 핵심 분야다.

대구침복재단은 뇌의 신호를 말초신경까지 전달하고 연결하는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기존 말초신경 보철기는 사용 횟수가 증가하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 신호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

재단은 코팅된 은 마이크로 입자와 기능성 유연전도소재를 활용해 말초신경을 만들면 여러 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도 자극 전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은 장기간 동물 실험을 통해 기존 보철기보다 안정적인 신호 공급·전달이 가능한 말초신경 보철기 개발에 성공했다.

관련 연구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올해 5월호에 실렸다.

대구침복재단 관계자는 "의사는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술을 실현하고 환자는 마음 놓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 연구진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대구식약청·첨단임상시험센터 곧 입주...제품화·임상 과정 핵심시설"

양진영 대구침복재단 이사장

양진영(사진) 대구침복재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침복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연구 결과들을 산업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설립된 대구침복재단이 그간 초석을 다지는 시기를 거쳤다면 지금부터는 성장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현재 침복단지에는 100여 개의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다. 곧 단지 내에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중요 국제연구기관이 추가로 문을 연다.

양 이사장은 "의료제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공산품처럼 기업에서 만들기만 하면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임상과 인허가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식약청 이전으로 입주기업의 연구 성과는 빠르게 제품화될 것이다"며 "2023년 들어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전임상, 임상 과정에서 재단의 중요한 핵심 시설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이사장은 또 대구침복재단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꼽았다.

그는 "가까이 있는 단지 내 입주기업부터 챙기겠다. 우리를 믿고 온 만큼 가려운 곳은 어딘지 먼저 물어보겠다"며 "재단은 인허가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공백 기술 지원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 연구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양 이사장은 "의료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이어갈 것이다. 교육은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자 수가 적어 제약기업이 생산해도 수익성이 낮아 제조를 꺼리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안정적 생산도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채원영 기자

세계 리더 탈세 폭로 '판도라 상자' 열렸다

ICIJ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 14개 기업 1200만개 파일 검토 정치인·연예인 등 수백명 연루 25년간 저택·요트 등 몰래 투자

세계 정치 지도자, 억만장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판도라 페이퍼스'가 3일(현지시간)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16년 이후 유산한 내용의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 당시 이름이 오른 이들 일부가 사임과 수사에 직면하는 등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다시 지도자들의 위법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세계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약 1천200만 개의 파일을 검토한 결과 수백 명의 정치인,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이 지난 25년간 저택, 요트 등에 '몰래 투자'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CIJ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한 단체이기도 하다. AP통신은 이 보고서가 엘리트와 부패인사들의 숨겨진 거래, 어떻게 역외 계좌를 활용해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보호했는지를 밝혔기에 판도라 페이퍼스로 불린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현직 정치인은 336명이다. 압둘라 2세 요르

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파도르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수반 3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부패, 돈세탁, 글로벌 조세 회피 등 여러 의혹에 직면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과 입만 칸 파키스탄 총리의 측근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푸틴이 내연녀 등 측근을 통해 모나코 내 비밀자산과 연결됐다고 전했다. 억만장자로는 터키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리카크, 소프트웨어 회사 '레이놀즈 앤드 레이놀즈' 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브로크만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비밀 재산, 페이퍼 컴퍼니 등에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 일부를 은닉하는 형태로 큰돈을 관리하고 세금 포탈 등 혜택을 누렸다. 저명인사의 치부가 드러나자 논란 속에 후폭풍도 이어졌다. 사임 요구에 직면한 칸 총리는 문서에 나온 자국민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파네라 칠레 대통령은 광산 매각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일부 러시아 국영 언론은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 이름을 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사키라가 언급됐다. 재작년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세금 체납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 회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줄리어스·파타푸티언 '노벨 생리의학상' 선정 (미국인 2명)

"온도·압력에 반응 수용체 발견"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스 줄리어스(66)와 아렘 파타푸티언(54) 등 미국인 2명이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온도와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용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줄리어스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

이신을 이용해 피부 신경말단에 존재하는 열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체, 파타푸티언은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사용해서 피부와 내부 장기에서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촉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런 발견을 통해 우리 신경계가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기계적 자극을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47만 톤에 이르는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헨팅턴비치에서 인부들이 노란색 오일펜스 근처에 모인 기름을 흡착포로 제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캘리포니아 해상 기름유출 "송유관 폐쇄, 재앙적 상황"

47만 톤 유출 추정...10km 기름띠 잠수사들 발생 지점·원인 파악 인근 해변 동물 사체 떠밀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현장 주변 송유관이 폐쇄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석유회사 '엡플리파이 에너지' 최고경영자(CEO)인 마틴 윌셔는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기름 유출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며 "근처에 가동하던 송유관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잠수사들이 기름 유출 발생 지점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유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행정책임자인 카트리나 폴리 감독관은 트위터를 통해 '엘리'라는 석유 굴착장치와 연결된 송유관 파열 지점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해상에선 지난 1일 오

후 또는 2일 오전부터 약 47만 톤에 이르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기름띠는 인기 해변인 헨팅턴비치에서 남쪽 뉴포트비치까지 10km 넘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변에는 끈적하고 검은 기름과 새, 물고기 등 동물 사체들이 떠밀려왔으며 기름으로 인한 악취가 곳곳으로 확산했다. 헨팅턴비치의 킵 카 시장은 "이번 사고로 내려진 해변들의 폐쇄 조치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생태계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당국은 유출된 기름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는 습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름 유출은 2일 오전 미 해안 경비대(USGS)에 처음으로 보고됐으며, 헨팅턴비치 관리들은 예상됐던 '퍼시픽 에어쇼'의 마지막 날 일정을 취소했다.

日 기사다 '신인 각료 중용' 쇄신 이미지 부각

중·참의원 선거 100대 총리 선출 내각 구성원 20명 중 13명 교체 이달 31일 총선...첫 시험대 올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다. 4일 오후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기사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퇴했다.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은 384일로, 전후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다.



일본 총리 기사다 후미오
(岸田文雄, 64)

성향 비둘기파(온건파)로 평가되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인 고치카이(자유주의로 평가) 회장. 한일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

현안 발언 과격함 발언을 하지 않고 신중한 편이나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음

한일 갈등 현안 관련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야스쿠니 참배 등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

연말뉴스

기사다는 자신을 뺀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을 각료 경험이 없는 '신인'으로 채웠다.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기사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유임, 외교·안보 정책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신선했던 경제안전보장상에는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방위장무관이 기용됐다. 기사다는 아베 정권 시절 연속으로 약 4년 8개월 간 외무상을 지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합의의 당사자이다. 역사 문제는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의원 임기가 이달 21일 만료

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기사다는 오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여당 간부들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에는 내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기습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진정 국면에 있고, 새 내각 출범에 대한 기대가 높아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때 서둘러 유권자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총선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이었다. 스가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다.

행복이란
매일
행복이란
매일

2021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빅밴드와
함께 하 는
**용도 경북
그랜드 콘서트**

2021.10.14.(목) 7PM

경북도청 동락관

새바람 행복 경북!


소프라노 김정아


뮤지컬 배우 양준모


가수 박구원


가수 별사랑


지휘 이경구


MC 김현욱

KOREAN POPS ORCHESTRA

코로나로 지친 경북도민을 위로하는 행복한 콘서트

2018년 동라관 역대 최대 관객, 2019년 '경북도청 천년송 콘서트',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북을 대표하는 뮤지션들과 함께 지역민에게 대규모 클래식 콘서트를 선물한 매일소니, 올해도 어김없이 명품 콘서트로 경북 도민을 찾아 옵니다. 올해는 추풍령 등 경북을 대표하는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여 초연하는 뜻깊은 음악들이 펼쳐집니다. 뮤지컬 배우 양준모, 소프라노 김정아, 가수 박구원과 별사랑이 팝과 클래식을 모두 아우르는 빅밴드와 함께 코로나로 지친 경북도민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공연,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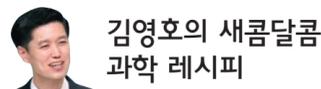
용도 경북 그랜드 콘서트 관람 안내

1. 현장 관람 방법

- 예약 방법 : 네이버 검색창에서 '용도 경북 그랜드 콘서트' 검색 후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 예약 인원 : ID 당 최대 2명까지 예약 가능
- 예약 일정 : 2021년 10월11일(월) 09:00 ~ 10월13일(수) 16:00 (*예약 오픈 시는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메인 시 초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연은 전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두 좌석 띄어 앉기로 운영됩니다. (*가리두기 단계에 따라 객석 운영 방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실물 티켓이 제공되지 않으며, 온라인 사전 예약 정보를 이용한 인증 절차 진행 후 공연장 입장 가능합니다.
- 공연장에서 발열 체크 후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입장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 새콤달콤 과학 레시피

이 모든 것은 화학작용의 산물이랍니다

“주기율표가 너~무 아름다워!”라고 말했다가 가족으로부터 쏟아지는 핀잔을 들었다. 가만히 주기율표를 보고 있으면 원자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서로 짝을 지어 춤을 추며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새 싸워서 토라지는 모습이 상상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구성 성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것이 주기율표다. 즉 그 표의 원자들이 만나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다. 향수와 명품 가방은 무척 좋지만 화학은 싫다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다. 그런데 화학을 살짝 깨물어 보면 새콤한 색다른 맛이 난다. 요즘 화학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에너지의 원천인 화학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다. 도서관 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과학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단어를 발견했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 책장을 넘기며 가만히 보다 보니 이것이 요즘 우리가 쓰는 ‘에너지’(Energy)라는 단어의 옛 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말하며 사는 시대다. 그렇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힘들다. 백과사전 정의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에너지가 파워를 발휘해 힘을

아이스크림 먹으면 달콤함 느끼고
맥주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것도
원소 조합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

내고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화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디젤 또는 전기가 필요하다.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와 디젤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는 힘을 만들면 이것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가 충전된 배터리에서 전기화학반응으로 전자들이 튀어나와 모터를 돌려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들을 에너지원이라 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도당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한 동물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포도당’(葡萄糖)이라고 말할 때 ‘포도’(葡萄)라는 과일이 연상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하면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익은 포도의 단맛을 내는 성분이 포도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물질을 포도당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통용어로는 ‘글루코스’(Glucose)다. 우리가 매일 식사 시간에 각종 맛난 음식들을 씹어서 먹으면 위와 장에서 아주 잘게 분해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글루코스를 흡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사람과 식물의 대화는 화학언어로!

식물이 음악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 춤을 추듯 잎사귀를 흔들거나 움직이는 무초라는 식물이 있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과 싫어하는 음악을 구분하는 식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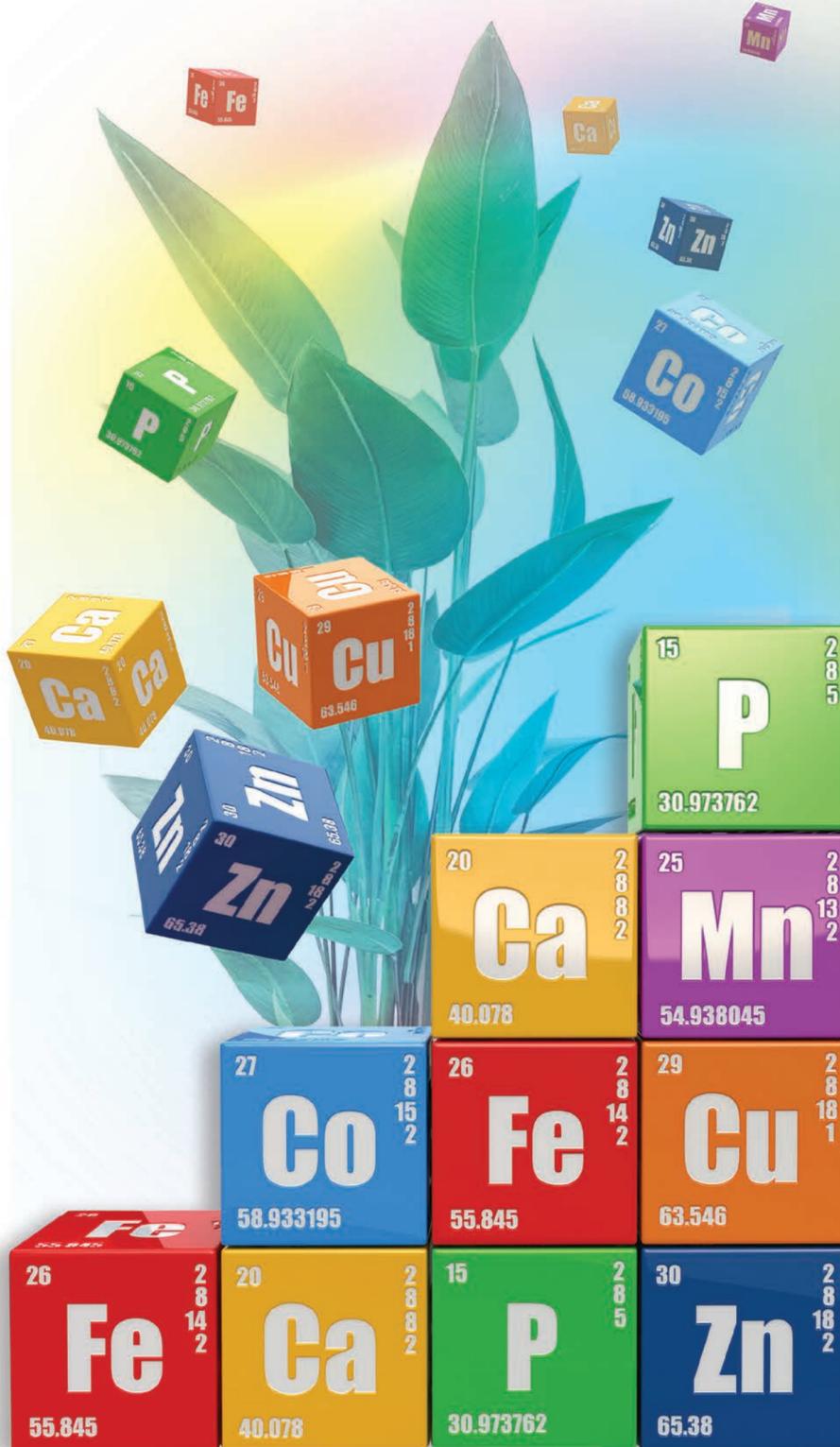
호박이 시끄러운 록 음악이 나오는 방향은 피하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쪽으로 줄기를 뻗는다는 것이 1968년 도로서 레탈락에 의해 보고된 이래로 식물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오고 있다.

포도당

페로몬

메틸자스몬네이트

에너지 만들고
사랑 속삭이고
식물끼리 대화



심지어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덴 칼슨은 식물이 더 잘 자라도록 해주는 음악(Sonic bloom)을 개발해 1983년에 특허를 내기도 했다.

또 다른 신기한 것도 있다. 사람이 식물에게 나쁜 말을 계속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지만, 사랑의 좋은 말을 해주면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다류 멘타리를 통해 이와 같은 것을 보면 그저 신기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믿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

나무는 곤충이나 다른 동물이 나무를 해치면 특정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어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이용해 다른 식물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메틸자스몬네이트’(MeJA)와 같은 화학물질을 ‘화학언어’라 한다.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내뿜는 기체 화학물질에 식물이 반응하는 현상을 포착했으며 사람과 식물이 교감할 수 있다고 2020년 10월에 밝혔다. 이것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과 식물 사이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교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 결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연구팀은 식물에게 사람의 입김을 처리하여 식물이 화학언어 물질을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일반 사람의 입김보다 식물을 해친 사람의 입김을 처리했을 때 메틸자스몬네이트라는 화학언어 물질이 2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을 해친 사람을 알아보고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 화학언어 물질을 많이 내뿜는다는 것이다.

◆사랑의 속삭임은 페로몬으로!
‘페로몬 향수’를 뿌리면 이성이 진짜로 유혹할 수 있을까?

화학 떠올리면 어렵지만 하다고?
사실상 만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첨단과학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

동물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뿌리는 페로몬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이 페로몬은 곤충들이 서로 간에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개미나 흰개미가 맛있는 먹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개미들이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 위에 뿌리는 물질이 페로몬(길잡이 페로몬)이다. 그리고 동물이 자신의 짝을 찾을 때 암컷이 수컷에게 사랑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뿌리는 화학물질이 성페로몬이다. 사실 페로몬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같은 종의 곤충이나 동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화학원소와 주기율표

세상 만물은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에서 17세기 연구술이 성행하던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러 그 원소들의 실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당시에 알려져 있던 화학 원소들과 관련된 일정한 규칙을 찾아 표로 정리해서 1869년에 발표했는데 이것이 주기율표의 시초였다. 멘델레예프는 당시 63개의 원소를 정리해 표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 원소들이 계속 추가로 발견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에는 총 118개의 원소가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26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성해 만든 인공 원소들이다.

보통 화학이라고 하면 화학물질을 떠올리며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주변 생물체와 대화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도 화학이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단맛을 느끼는 것과 맥주를 한잔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바로 화학의 작용이다. 최근 첨단과학이 신기한 나노 물질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첨단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신기한 화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푸드스토리텔러 노유진의 음식이야기

땅콩이 땅속으로 들어간 까닭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들녘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풍요롭고 평화롭다. 학창 시절 이맘 때가 되면 가을 소풍과 운동회로 한껏 마음이 들떴던 기억이 난다. 소풍과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간식은 삶은 밤과 땅콩이었다. 딱딱한 껍데기에 싸인 땅콩은 이로 한 번 살짝 씹을 내고 손으로 비틀어 까먹으면 고소한 맛과 재미가 최고였다. 하지만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그 시절 최고의 간식은 점점 우리들 곁에서 멀어져 버렸다. 아련한 추억과 함께 제철을 맞은 간식 땅콩.

콩류 중에서 꽃이 지고 나면 꼬투리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콩이 땅콩이다. 분류학상 콩류에 속하고 견고한 껍데기 속에 열매가 들어 있어 호두와 함께 대표적인 견과류이기도 하다. 원산지는 브라질이며 아메리카의 신대륙 발견 이후 전 세계에 전해졌고 우리나라는 조선 정조 임금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땅콩은 열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콩

류 중에서 당질 함량은 낮고 지질과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열량만을 따져서 땅콩의 영양성분을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단백질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 함량이 높고 지질 중에는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등의 필수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우수한 식품이다. 젊음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 또한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은 땅콩을 볶아서 활용할 경우 22%가량 더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지방산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이 있어 현대인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장병과 동맥경화 예방 및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땅콩에 풍부한 니아신(niacin) 성분은 숙취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므로 땅콩은 술안주로 적절한 식품이다.



땅콩

땅콩을 술안주로 먹을 경우 마른오징어와의 궁합 또한 훌륭한데 마른오징어에 들어 있는 높은 콜레스테롤을 땅콩의 불포화지방산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땅콩은 영양적인 면에서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식품일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영양상으로 우수한 땅콩의 칼로리가 문제라면

씨를 띄워 새싹 땅콩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이다. 새싹 땅콩은 햇땅콩을 약 6, 7일간 발아시켜 씨를 띄운 것으로 몇 해 전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건강 기능성이 입증되어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항암 및 항산화 작용과 노화 억제에 효과적인 라스베라톨 성분은 땅콩 종자의 약 90배, 적포도주의 약 180배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제철 땅콩에 씨를 띄워 먹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겠다.

좋은 식자재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신선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선도는 보관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땅콩도 보관상 주의할 기울일 필요성이 많다. 생땅콩의 경우 수분이 많아 장기 보관 시 눅눅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고 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많아 산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신선한 땅콩을 장기 보관하며 섭취할 때는 특히 곰팡이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곰팡이가 만들어 내는 아플라톡신은 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

이므로 단단히 밀봉해 냉장 보관 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땅 위에서 만들어진 꼬투리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다른 콩류와 차별화된 성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탄생한 땅콩~!!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가치가 다소 희석되긴 했지만, 그 강한 생명력과 도전에 의한 새로운 탄생은 현재의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식자재다. 코로나19로 전혀 예측 못 한 세상 속 시스템에 던져진 우리들도 땅콩의 상황과 같을지 모른다. 화려한 꽃이 지고 햇볕 아래 열매가 맺힐 줄 알았던 꼬투리가 돌연 땅속으로 들어간 기분이란 암흑과도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단단한 껍데기 속에 영양으로 단단히 무장한 콩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



푸드스토리텔러



그의 음악은 가을을 닮았다, 남자의 고독처럼...

최재수 기자의 클래식 산책

<38>커피 향처럼 묵직한 브람스 음악

수만 부인 연모하며 평생 독신 생활 쓸쓸한 감상성·로맨틱한 선율 선사

브람스의 음악은 유독 가을에 더 사랑받는다. 묵직한 중저음이 진한 커피 향처럼 그의 음악에는 '남자의 고독'처럼 쓸쓸한 '가을'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역시 음악처럼 쓸쓸함과 외로움 그 자체였다. 1년 내내 쓸쓸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다. 그리고 수만의 부인 클라라를 연모하며 평생 외롭게 독신으로 살

았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서 쓸쓸함과 고독, 그리고 깊은 성찰과 함께 애잔한 그리움이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면적 깊이와 엄숙함이 짙게 배어있는 그의 음악을 처음 대하는 초심자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심오한 세계로 빠져들며, 한편으로는 한없이 여린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인생의 가을'을 노래한 교향곡 제4번은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우수에 찬 정서 더해 관현악 대가답게 악기 편성도 최소 특유의 짙은 우수와 고독에 찬 아름다운 선율이 작품 전반에 깃들여 있는 작품이다. 브람스가 입증 때 교향곡 4번을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이 곡에는 평생 독신으로 지낸 브람스 만년의 고독한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특히 1악장에서 인생의 황혼을 짙게 느낄 수 있다. 클라리넷과 비올라, 첼로와 호른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소리, 그사이 느껴지는 진한 고독감은 작품 전반의 중후함을 더한다. 관현악의 대가답게 최소한의 악기 편성만으로도 짜임새가 돋보이는 곡 구성과 치밀하고 논리적인 화성 진행 등 브람스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교향곡 제3번은 영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잉그리드 버그만, 이브 몽탕, 앤서니 퍼킨스가 주연한 이 영화에서 3악장은 브람스 특유의 우수에 찬 선율로 듣는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

다. 그리고 클라리넷 트리오 2악장은 땀을 스치듯 불어오는 가을바람의 질감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의 휘파람 소리처럼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자동적으로 귀를 쫓겨 세우게 될 정도로 가을의 감성이 느껴진다.
브람스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고독함과 쓸쓸함의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한 고독한 투쟁과 노력, 그 쓸쓸함의 감상성을 파고들기 때문이 아닐까. 이 가을, 브람스가 들려주는 쓸쓸하지만 로맨틱한 선율로 텅 빈 마음을 채우면 어떨까.
biochoi@maeil.com

이웃과 연대...그림책으로 긍정 씨앗 뿌려요

문득 동네책방

<39>구미 금리단길 '그림책산책'



구미 금리단길의 동네책방 '그림책 산책'. 김태진 기자

주소로는 분명 구미 '원남로'라고 했다. 책방을 찾아가 가까이 갈수록 금오산도 가까워졌다. 금오산이 정말이지 코앞이구나 싶어 고개를 찾자 들숨에 청명한 삼림향이 밀려온다. 운이 좋으면 현월봉 정상석까지 보인다 할 만큼 금오산은 구미 도심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은 이곳을 원남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서울의 경리단길 못지않다는 의미에서 '금리단길'이라 불렀다.
금리단길은 도심재생구역으로 지정돼 한창 붐을 같이하고 있었다.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아이디어로 무장한 카페나 식당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그림책방 '그림책산책'도 1년 전 금리단길 중심으로 옮겨 와 눈길을 잡는 곳이다.
'그림책산책'은 2018년 10월 1일 구미도서관 인근 건물 지하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책방 이름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임 이름에서 왔다. 책방지기 하정민 씨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이라고 이곳을 소개했다.

코로나 맞서 주변 상인과 '지역문화운동' 버스킹·공방...주민과 로컬잡지도 발간

책방을 둘러보니 그림책은 기본이었고 그림책 작가들이 쓴 에세이도 눈에 띈다. 황유진 작가의 '너는 나의 그림책', 권윤희 작가의 '나의 작은 화판', 심지어 문예지 띠터도 보인다. 자세히 보니 '나, 요즘 그림책 읽어'라는 커버스토리의 2020년 8/9월호다. 그림책방 책방지기들에게는 희귀템인 듯했다.
하 씨는 책방을 운영하면서 연대의 힘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특히나 자영업자 모두를 무릎 꿇린 '통곡의 벽'이라는 코로나 시국이다. 주변 상인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이벤트는 물론,

그림책을 함께 공부하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적잖다는 것이다.
하 씨는 "그림책을 공부하는 이들과 함께 그림책이 갖고 있는 긍정과 행복의 씨앗을 퍼뜨리는 중"이라며 "그림책 버스킹, 공방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운동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어디서든 고수가 나타난다.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적시에 발휘하는 이들이 있다"며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꼽았다고 했다. 이미 금리단길 주민들에게서 그런 저력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한 산책길'이라는 로컬잡지도 발간했고 또 여느날 잡이라고 했다.
그림책방에 들른 차에 가을에 어울리는 그림책 한 권을 추천받았다. 가을을 타는 이들에게 그는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그림책을 권했다.
"가을은 울해 뭘했지,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열심히 뭔가를 한 건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한 게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없다."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쉰다. 늦여름과 초가을의 전환기에 책방과 가까운 금오산 산책길을 걸어보는 건 덤이다.
김태진 기자 novel@maeil.com

해설이 있는 클래식

6~8일 웃는얼굴아트센터 '피아노 워크' 이미연 예술감독 포함 연주자 6명 출연



이미연 예술감독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클래식 음악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피아노 음악축제 '피아노 워크 2021'을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 청룡홀에서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인 '피아노 워크'는 이미연 예술감독을 비롯해 박종해, 김상영, 최혜리, 김재원, 정지교 등 정상급 피아니스트 6명이 출연해 모차르트, 쇼팽, 브람스의 피아노곡을 그들만의 해석으로 표현한다.
첫째 날인 6일 공연은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먼저 이미연과 정지교가 함께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 뒤 김상영이 '론도 a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최혜리가 '아,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을 들려준다. 이날 공연은 이미연과 김상영이 '네 손을 위한 소나타 D장조'를 연주하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7일 연주는 쇼팽의 곡으로 채운다. 먼저 최혜리가 쇼팽의 유작 '왈츠 14번 e단조'와 다른 녹턴에 비해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녹턴 13번'을 들려준다. 이어 정지교가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마주

르카 Op.24'를 연주하고, 김상영이 발라드의 정점 '발라드 4번 f단조'를 들려주며 이날 공연을 마친다.
피아노 워크 마지막 날인 8일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브람스의 작품을 들려준다. 박종해가 먼저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중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를 연주한다. 소나타라는 고전주의적 형식에 특유의 낭만주의적 느낌이 나는 곡이다. 이어 김재원이 '6개의 피아노 소품곡' 중 2번 인터메조를 들려준다.
피아노 워크의 마지막은 브람스가 헝가리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발표한 '헝가리 무곡'이 장식한다. 이번 연주에서는 21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연탄곡(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함께 치며 연주하는 곡) 헝가리 무곡 중 가장 유명한 5번을 포함해 1번에서 6번까지 김재원과 박종해가 함께 연주한다.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은 "대표적인 피아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한 '피아노 워크'는 유명 클래식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을 국내 최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티켓은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하면 된다. 053)584-8719. 최재수 기자

법인부동산

광고문의 및 접수 ▶ T.053)656-4448 / F.053)656-1118

법인부동산

부동산시장의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평수를 국제 규격인 m²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토지 취득 자유화) ※평을 m²로 환산하려면 1평 = 3.3058m²입니다.

수성구

최신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장원·아너스 가든 1, 2, 3차 분양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동구

동경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자연녹지11154 서대구역사 근, 아산 물류창고 다용도 160억, 투자100% 053)744-6767

군위우보3807(1152) 보전관리, 과수원, 금채분, 당18만 마을입구, 긴급처분 053)744-6767

유원지 큰땅 2700m² 최요지, 다용도, 모델 당1,500만 053)744-6767

★팔공산 1,300★ 1층 주거지역, 당160만 분할가능, 부최고 010-7127-6776

달서구

(K부동산중개사)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부동산, 공장입대, 매매 최다물건보유, 전화주세 588-0097

★성서 공장매매★ 대19,834m², 건13,223m², 고7M, 동력 1900kw, 당380만 010-9973-0097

★영천 공장매매★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대46671m² 건5401m², 평당가46만 010-9973-0097

★3공단신축공장★ 매매, 대1084m² 건638m², 고9m 동력30kw, 당760만 대출90% 토지가격으로 건물은 보너스로 신축해드림 010-9973-0097

★왜관 소매점매매, 대1029m² 건305m² 대로변, 핫플레이스 추진(산강공원, 다산문화, 스타벅스, 투썸베이커리, 스크린골프, 당8000만) 010-9973-0097

상흥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월2700, 5층 통상가, 대로변 대820, A급상권 A급 신축 건물, 임대료 인상가능 채용안고, 인수가15억 053)354-1015

달구별 대로, 명당(단지 입주 최요지 코너, 개발추진 시세차익, 대1720, A급상권, A급변화기 세안고, 인수가175억 053)354-1015

월635, 3층 통상가 성서 공실률, A급상권, 대지520, 상업지역 세용안고, 인수가15억 053)354-1015

서구

(주)대동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비슬산 휴양림 입구 자연녹지, 펜션, 카페 전원주택, 3,430m², 당240만, 분할, 가격 협의 가능, 매물접수 053)284-0118

통상가 대2380, 건1930, 대도로접 월1250, 72억, 프랜차이즈 대595, 건850, 월1100, 대로 42억 010-2509-9996

고령 생산관리 농림 약10만m², 당17만, 체육시설 농장 적지 053)284-0076

★카페, 스킨골프장 대용도가능, 신시청이전지, 2차선 코너, 500m², 가격협의 053)284-0188

공장부지 와촌·C군, 토목허가 완료후, 당50만, 면적 1000~5000(다량)계획관리지역(재생프 라스틱다용도허가가능) 053)284-0136

대지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모텔, 전체무인객실28실, 경남 대1100, 매38억, 10억인수유용 모델, 경북, 통23, 대800, 30억 인수(유용)중축시 통60실 이상

모텔 12억인수, 달서구(유용)울리품 평, 대220, 매출5500이상, 통36 월13억인수(유용)대218, 통36 상가임대수입분대 561-6561

카모텔, 3억인수 유용 대260, 객18 실림이 파계사, 교황관 561-6561

모텔, 12억인수(유용)대250, 통36 대로변 최고요지, 수선용 561-6561

모텔매매, 동구최요지13억(유용) 통36실, 대591, 시설, 매출양호 모델, 14억인수(유용)대480m² R26 주 점적영역시설화상 053)561-6561

서구

(주)상성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4층 통상가 중성상업 대지540m² 초역세권, 홈플러스최요지, 네거리코너 월865만, 21억인수 053)557-9770

4층상가주택 대지250m² 네거리 코너 존신축, 공실률, 월세 걱정물, 주민살고 월430만, 7억인수 053)557-9770

4층상가주택 재개발(최요지)코너상가, 울리모텔링 월582만, 통평12억5천 053)557-9770

3층상가 아파트입주최요지, 주동로상가추천할! 월370만, 통평12억5천 053)557-9770

4층 통상가 대115* 차후월세1천만 대단지(최요지)중성상가, 추천물건 현760만, 통평29억 053)557-9770

서구

(주)상성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구분상가 3칸 대지327m² 대로30m² 현재 편의점 관련업체 입점, 장기계약 월330만, 통평13억5천 053)557-9770

월3100대단지정문 대 1002m², 건4870m², 35억인수, 지하철점 대단지최요지, 손남버글 010-6547-4488

월2200약국병원 빌딩 대지725m² 건3977m², 25억인수, 3만세대최요지, 지상철근, 버스승강장점 010-6547-4488

월1억2천약국병원 빌딩 대지1977m², 건14430m², 110억인수, 지하철 출입구접상업동최요지 010-6547-4488

달구별 대로점! 땅 대1729m², 당3900만, 100억인수, 지하철 출구접코너, 월2000만 010-6547-4488

대형커피숍!매매 대1661m², 건5599m², 당597만, 15억인수, 도35x2차선, 연1억정도지가상승 010-6547-4488

서구

(주)상성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월1700, 6층 통상가 지하철입구, 보2억, 용20억안고 34억인수, 금매물 053)527-9955

시세이하 투자용 임야, 청도 통각, 53,500m² (약 16,200), 농림지역, 갈나무, 자두나무식 재종, 매매가1억9500 010-7678-8062

투자용 땅 영천시 학남면 46,810m² (14,160) 농림지역, 표정도점, 모아있고 북영천C10 분거리, 매매가1억4천 010-7678-8062

시세이하 투자용 임야, 의성군 춘산면, 101,157m² (약3만평) 농림지역, 입구부구입시 주차 농약설 치가능, 매매가19천만 010-7678-8062

투자용 시세이하, 땅, 안동시 길안면, 487,068m² (15만평) 계획관리, 농림지역, 매매가 당4,800원 010-7678-8062

대용도부지 대로점 비산동 상업지역 907m² (280), 시세이하, 상업부지 매매가 당1,500만 010-7678-8062

분양상가 병원부지

(주)상성부동산(주) 분양부동산 41-0070(2720-2017-0026)

분양상가 병원부지 제2층주거, 면적1315m² (400) 현재 단층 상가, 매매가 당2천만 010-7678-8062



복성로 기술자가 만든 댄싱머신

댄스팀 '아트지' 내달 12일~28일 동성로 CT극장 공연
공구 소리 맞춰 비보잉·팝핀 댄스 선보여
슬랩스틱 더해 관객 공감하며 웃음
복성로 재개발 이슈 메시지



“스트리트 댄스로 대구 복성로를 알릴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난달 29일 대구 중구 번개시장 맞은편에 있는 댄스팀 '아트지'(ArtGee)의 지하 연습실은 금방 안무 연습을 마친 듯 후끈한 분위기가였다. 이들은 11월부터 새롭게 선보일 공연을 맹연습 중이다. 입체감을 배가시킬 프로젝트 맵핑 등 첨단 기술도 논의되고 있었다.
“복성로에 불고 있는 재개발 이슈를 메시지로 담을 예정입니다. 스토리라인도 색다르게 바꿔보려고 해요. 재개발 로봇을 만들려는 과학자의 음모에 맞서 복성로의 기술자들이 댄스머신을 만들죠. 문화 다양성을 살려낸다는

내용으로요.”
세계적인 댄스 배틀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해 존재감을 알렸던 아트지가 대구 대표 관광공연으로 입지를 다진다. 대구관광재단이 지난 8월 대구 대표 관광공연으로 아트지의 '틀스 앤 댄스'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아트지는 독특한 공연으로 댄스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들의 공연은 히트곡 안무를 따라하는 커버댄스와 다르다. 댄스배틀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트 댄스임에도 고난도 춤 동작만으로 무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관객이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슬랩스틱 요소 등을 가미한다. 스토리라인이 있는 진행이다. 갖가지 주제와, 메시지를 공연에 실는다.

대구관광재단의 대구 대표 관광공연으로 선정된 '틀스 앤 댄스'는 2019년 첫 선을 보인 바 있다. 복성로에서 활동하는 업사이클링 밴드 '홀라'가 기획한 오픈 팩토리 무대였다. 공구를 이용한 판토타임 느낌의 공연을 10분 짜리로 구성했다. 여러 공구에서 나는 소리에 맞춰 비보잉, 팝핀 댄스 등을 접목해 보였던 것이다. 호쾌한 움직임에 관객 호응도는 높았다.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기술적 자부심이 있는 복성로다. 이들은 이후 공연에 이야기를 좀더 입히자는 데 뜻을 모은다. 확장판은 30분짜리 공연이었다. 지난해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복성로의 하루'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호평이 쏟아졌다. 대구관광재단이 기획한 '대구 대표 관광공연 공모전'에서 선정작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아트지는 11월 공연에서 댄서 7명, 보조출연자(후자) 3명이 60분 길이로 무대를 채울 거라고 했다. 공연은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매주 금요일~일요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 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 동성로 CT극장에서 이어진다.
강선구 아트지 대표는 “대구의 특색을 담으려 노력했다. 관객수에 비해해 공연일자도 늘 아닐 수 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태진 기자 novel@maeil.com

매일춘추

'모내기'라는 작품, 그리고 통통한 여름냄새

나의 작업실인 '일오처'(逸悟處)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좋은 작품이 하나 있다. 명작이라 할 만한 이 작품에는 모종의 통통한 여름 냄새가 난다. 그림이 아닌 붓글씨다.
‘모내기 3의1 권소정 영주동부 국민학교’라고 단출하게 쓴 게 전부인 붓글씨다. 초등학교 3학년 글씨다. 3의1, 3학년 1반이라는 뜻이다. 오른쪽 세로에 '모내기'라고 쓰였고 왼쪽 세로에는 어눌한 정감이 밝혀오는 낙관이 있다.



권기철

학년과 학교를 쓴 글씨의 자간과 행간 사이에 이 작품을 취득한 친구가 그 과정을 깨알처럼 기록해 놓았다. 1994년, 정확히 27년 전의 일이다. 읽으면 흐트러지는 발문 전체를 옮긴다.
이것은 일천구백구십사년 유월이십구일 영주청년회의소가 주최한 백일장에서 쓴 글씨다. 그때 묻지 않은 천진스러움이 사랑스러워 문득 갖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넣고 돌아와 다시 펼쳤다. 이것을 얻은 기쁨, 어디에 견줄 바 없이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이 또한 욕심인가 여겨져 마주대하기 조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심정이 더욱 아쉬운 것은 심사를 하면 틀에 박힌 대동소이한 대부분의 글씨를 챙기느라 이렇게 신선한 정감을 주는 것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만 했던 안타까움이다.
정녕 우리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해가 비추면 비추는 대로 거짓 없이 자라날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아득하다. 나의 기성 사고의 무지함에 부끄러운 무게를 더할 뿐이다.
이렇게 서예가인 친구는 백일장에서 낙성한 꼬마의 작품 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오버랩시켰다. 유년기의 작품을 두고 흔히 우리는 명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마 사회성 결여가 그 이유일 것 같다. 글씨의 크기와 자간, 행간은 뼈뼉뼉하게 격이 없고 틀이 없다. 단순하고 소박하다. 더불어 조화롭고 담담하다.

큰 기교는 마치 서툰 듯하다. 이런 예술의 경지는 '대교약졸'(大巧若拙)의 의미다. 유년의 꼬마가 서툰 큰 기교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모내기'라는 세 글자를 마냥 대교약졸로 운석하고 그렇게 반안해 읽는다. 유년부대의 자의적이고 고약한 습관이다. 화가가 된 지금, 더 나은 차원의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함의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타인과 우선을 다루는 일이 성가시고 별 흥미가 없어질 때 '모내기' 글씨를 본다. 번잡한 논리는 어울리지 않는 아랫하고 통통한 여름 냄새가 난다. 공물여 흘려놓은 천진한 꼬마의 땀 냄새도 나고, 더불어 친구의 안목이 내 붓의 질긴 근육으로 전이된 확도 보인다. 하나의 작품에서 두 사람의 풍경을 동시에 이식하는 일이니 그 향기는 더욱 진하다.
3학년 꼬마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도 서툰 번이 흘릴 낚는 여름 냄새를 맡았을 것이고 서툰 번의 초록색이 낙엽으로 바뀌어 가는 가을의 초입을 구경했을 것이다. 나에게 소박한 깨달음을 준 그 꼬마는 지금 무엇을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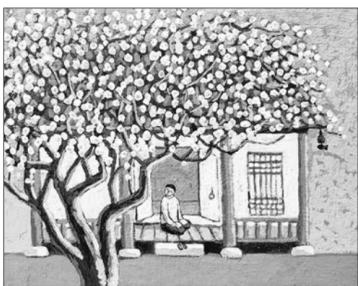
회가

봉산문화거리에 12개 갤러리 모였다

오늘부터 봉산미술제 250여점 전시 온라인 경매·VR 전시체험 행사 열려

제29회 봉산미술제가 5일(화)부터 10일(일)까지 옛새간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봉산미술제는 모두 12개의 갤러리가 참여, 국내외 작품 250여 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주요 행사로는 온라인 경매와 VR 전시체험(봉산문화협회 홈페이지), 어린이 미술대회(8일부터 10일까지), 도슨트 아트 투어(미술제 기간 중 매일 2회) 등이 마련된다.

미술제 기간 내 봉산문화거리 방문객에게는 기념품 증정과 함께 거리 내 카페에서 협찬하는 무료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봉산문화협회 홈페이지(www.bongsanart.com), 도슨트 투어 예약과 미술제 문의는 010-9585-4392로 하면 된다.
봉산미술제 참여 갤러리와 작가는 다음과 같다. >갤러리 그림촌(가국현, 김동광, 김정기, 이경희, 이수동, 장음길) >동원화랑(김원희, 변미영) >갤러리 모란동백(김주호, 문은숙, 전남현, 설종보) >수화랑(박진성, 최우) >신미화랑(이화진) >갤러리 에로비(최정화)



설종보 작

>예술 갤러리(모미화) >갤러리 오늘(최애리) >우순 갤러리(이배) >갤러리 제이원(강주영, 박종태, 성백주, 이부강, 알렉스 카츠)
우문기 기자 pody2@maeil.com

정희운 개인전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

민화와 판화를 접목한 작가 정희운이 5일(화)부터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개인전 'His Own Mode'전을 갖는다.
작가는 일상적인 세련미나 격조가 아닌 자유분방한 사고와 체계에서 벗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민화의 본질적인 요소를 드로잉, 페인팅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형성화된 이미지의 다변화된 작업방식을 풀어냈다.
또 정희운은 민화와 판화의 애매모호함과 부조화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해놓은 관계성에 대해서도 개념을 확장해 현대미술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전시는 10일(일)까지. 문의 053)661-3500.
우문기 기자

일반부동산

수성구

■유명공인(복성로)수성27260-2016-00126
8600만.60억인수(대출80%가능)
대1250㎡, 건9500㎡, 프랜차이즈 병원, 유명학원, 금융, 대기, 대형캐시, 대구최고상권, 유동인구최상, 보안고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두산 위브 77

수성구

매26억, R층, 전방출음 당장 입주가능 010-3509-4725
■동남부동산(복성로)수성761-7501(가-16-1501)
직원모집 37년전통 유류브전문 직원 우대 모집합니다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달구벌대로점점상가

수성구

초역세권 상업지역, 투자가치대, 대990㎡ 방문상담 바랍니다 053)762-6688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범어네거리 빌딩

수성구

대형빌딩, 범어네거리역세권, 매매220억 전화주시면 상담가능 053) 214-8818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수성구 동대구로 상가 매매
대1085.6㎡, 건1480.77㎡, 상권위치차 방문상담 요망! 010-2714-1155

달서구

수성구

■하나부동산(김창수달서구)가-17-2110 원문 건물, 대340, 건561 준공2016, 주차장2대, 원문8 투5, 쓰리2, 주인세대, 인수가4억5천, 월464, 공실률, 시설완벽 010-3503-0423
■동우부동산(류진우)달서27260-2018-00152
※4층 통상가 대229 건490 보3억5천, 월2000 출 용당52억 010-9995-2299
■다산부동산(박영수)달서47830-2020-00005
공장매매 대510, 건70, 전50k 금매, 2억9천 635, 4차선점고나, 광고효과출음 흡수판택배까지금매(54)955-4949
■현대공인(김영진)가창)27710-2020-00089
가창계곡점한농지 금매 450, 400, 225, 당55만, 포장도로점 경관수려함 010-6415-0051

북구

수성구

■다들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2층 상업지역 상가, 대880㎡, 건993㎡, 보1억7천, 순월세1, 150만출 명값이해(당1, 355만)용세안고인수9억 수취물, 장래가치최상 010-7437-5535
■다들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2층 상업지역 상가, 대880㎡, 건993㎡, 보1억7천, 순월세1, 150만출 명값이해(당1, 355만)용세안고인수9억 수취물, 장래가치최상 010-7437-5535
■다들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2층 상업지역 상가, 대880㎡, 건993㎡, 보1억7천, 순월세1, 150만출 명값이해(당1, 355만)용세안고인수9억 수취물, 장래가치최상 010-7437-5535
■다들리치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2층 상업지역 상가, 대880㎡, 건993㎡, 보1억7천, 순월세1, 150만출 명값이해(당1, 355만)용세안고인수9억 수취물, 장래가치최상 010-7437-5535

달서구

수성구

■하나부동산(김창수달서구)가-17-2110 원문 건물, 대340, 건561 준공2016, 주차장2대, 원문8 투5, 쓰리2, 주인세대, 인수가4억5천, 월464, 공실률, 시설완벽 010-3503-0423
■동우부동산(류진우)달서27260-2018-00152
※4층 통상가 대229 건490 보3억5천, 월2000 출 용당52억 010-9995-2299
■다산부동산(박영수)달서47830-2020-00005
공장매매 대510, 건70, 전50k 금매, 2억9천 635, 4차선점고나, 광고효과출음 흡수판택배까지금매(54)955-4949
■현대공인(김영진)가창)27710-2020-00089
가창계곡점한농지 금매 450, 400, 225, 당55만, 포장도로점 경관수려함 010-6415-0051

공황 후적지 농지

수성구

포정도점, 2214㎡(670), 당130만 053) 964-4849
■금매영천계획관리 공장·창고부지, 도8점, 1000, 3000 5000, 분할할, 당35만 053) 964-4849
■중구
■백라공인(정영희)수성27170-2019-00033
최고상가부지 상업, 대구 역앞, 북성로, 대357㎡, 당3천, 명도책권 010-2540-4305, 010-7743-3660
■대성사 매매 중구 북성로 대734.7㎡, 건394.72㎡, (4층건물) 매50억(가격절충) 010-3824-9457
■청정지역전원주택지 전기, 수도, 도로포장완료, 동영천 일고하이 패스CS분, 당35-55만010-3824-9457
■금남부동산(백영진)동구)27140-2018-00063
★급매 동구반야월 1층, 2차선점, 전면50m, 대2,856㎡(864) 당400만 053)964-4849

최고공인중개사

수성구

신상I·C 인근, 공장매 매387, 건120(신축) ★대1208, 건310, 사58, 호3대 전250kw 010-5378-1381
■성주군
■낙동강변 최고단지 신남 전원주택 (운양역 10분거리) 콘크리트골조 원로 010-3507-5413
■코리아공인(권태호, 달서)가-17-2388
명포초 폐교 매각 경북성주선남면명포리신41-1외5필지 남대구·C30분, 남성주·C7분거리 진입도로 10M점, 11,484㎡, 매15억 공장, 창고, 물류, 연수원, 요양원 적합 053) 587-7055, 010-8599-0354
■주왕산공인(조영태, 청송)가4228-34
청정지역 썬 집터 청송읍 금곡리, 마을뒤, 죽시 건축됨 1,080㎡, 용량1900만 054) 873-3388
■합천군
■해인사IC 4km 하우스 농막, 주택 길이26.8m, 폭8.1m, 높이5.5m 당590㎡, 매대1억6천010-7379-9900
■전원주택지 면적다양6필지, 기승택지는전망, 오염없는공기, 가재가사는1급수, 당30 010-7379-9900

매24억

7.8억인수, 월620만출, 유명대학교인근 상권 매우양호 010-3509-4725

매620

역세권대점점, 유명체인점 최고상권, 대100, 매2억 역세권대, 체인점, 상업120 평당19억 010-6630-8648

매550

역세권대점점, 유명체인점 최고상권, 대100, 매2억 역세권대, 체인점, 상업120 평당19억 010-6630-8648

매1300㎡

대1300㎡, 건990㎡, 유영매 23억인수010-5883-6100

매1900

대1300㎡, 건990㎡, 유영매 23억인수010-5883-6100

매1300㎡

대1300㎡, 건990㎡, 유영매 23억인수010-5883-6100

제4기 1차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기간 : 2021. 01. 01. - 2023. 12. 31.

| 전문병원 지정현황 |

지정분야	기관명칭	주소·전화번호
안과	제일안과병원	대구 동구 아양로 1 ☎ 053)959-1751
척추	참조은병원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4 ☎ 053)630-8000
화상	푸른병원	대구 중구 태평로 102 ☎053)471-2800
산부인과	효성병원	대구 수성구 수성로194 (중동) ☎ 053)212-7777
대장항문	구병원	대구 달서구 감삼북길 141 ☎ 053)560-9114
척추	우리들병원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48 ☎ 053)212-3000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
체계화된 진료시스템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내려 놓았더니... 최고의 피칭이 왔다

성장통 겪는 삼성 최재홍

작년 자책점 1위 토종 투수 올 시즌 개막 앞 부상 악재 복귀후도 페이스 계속 난조 강민호 "편하게 하라" 조언 NC전 8이닝 무실점 완벽투

삼성라이온즈 투수 최재홍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최재홍은 지난해 데뷔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26경기에 나서 첫 두 자릿수 승수(11승)를 올렸고 토종 투수 중 평균자책점 3.58로 1위를 찍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옆구리 부상을 당해 제때 출발하지 못했고, 복귀 후에도 좀처럼 페이스를 끌어 올리지 못했다.

최재홍은 "스스로 기대를 많이 했다.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컸는데 생각만큼 몸이 안 올라와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던 시즌 중반 무렵 (강)민호 형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잘한 거 알지만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시기가 있어야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라고 덧붙였다.

조언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봤다. 최재홍은 지난 9월 26일 NC다이노스전에서 올해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 8이닝 5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완벽투를 뿌렸다. 한계 투구 수 100구를 넘긴 상황에도 끝까지 마운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한구 한구 집중했다.

그는 "경기 초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점수를 주지 않으니 스스로도 좀 놀랐다"며 "후반 들어 공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운이 좋았다. 삼진 잡는 능력이 부족해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형들이 잘 도와줘서 결과가 좋았다"고 했다.

앞서 다른 의미(?)로 주목을 끌었던 경기가 있었다. 지난 9월 15일 LG트윈스전에서 5회 투런 홈런을 맞고 덕아웃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중계 방송에 잡혔다.

최재홍은 "순위 싸움에 있어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다. 팬들도 많이 오셨고 나름 기대가 컸다"며 "LG 선발 케이지 켈리와 맞붙어 이긴다면 평가가 더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실투 하나가 나왔고,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었다"고 말했다.



역투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최재홍.

삼성라이온즈 제공

그런데 점수를 주지 않으니 스스로도 좀 놀랐다"며 "후반 들어 공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운이 좋았다. 삼진 잡는 능력이 부족해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형들이 잘 도와줘서 결과가 좋았다"고 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팀 동료들은 놀리기 바빠다. (박)해민이 형이 경산에서 재활군 훈련을 마치고 라팩에 와서 '왜 우냐. 그게 울 일이나'고 놀렸다. 지금도 놀리

고 있다"고 웃었다. 지난해 최재홍의 두 자릿수 승수를 지켜본 동료 원태인은 올해 자신도 그 목표를 넘고 싶다고 했고, 현재 13승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최재홍은 "태인이

는 겨울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 같이 훈련하며 봤는데 뭔가 달라 보였다. 계속 잘 해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올해 삼성은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최재홍은 "후반기 들어 페이스

류현진 4번째 14승 가을야구 아쉽네요

양키스·보스턴에 1승 적어 토론토, 와일드카드도 좌절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소속 팀의 가을 야구 출전권이 걸린 2021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5이닝을 던지고 통산 4번째로 14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한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솟아내고 2실점 했다.

토론토의 12대4 대승으로 류현진은 2013~2014년, 2019년에 이어 빅리그 진출 후 4번째로 14승(10패)째를 거뒀다. 하지만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라이벌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모두 이긴 바람에 1승 차로 밀려 포스트시즌(PS)을 접었다.

아쉬움이 크지만 류현진 개인적으로 가을야구 휴식기를 내년 시즌 반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어깨 수술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을 던진 2018시즌부터 류현진은 매년 쉼새 없이 시간을 보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었던 2018년엔 보스턴 레드삭스와 월드시리즈 2차전을 포함해 PS 4경기에 등판했고 휴식 없이 곧바로 2019시즌 준비에 돌입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토론토로 이적한 지난해에도 류현진은 PS 한 경기에 등판했다.

류현진은 PS 탈락팀에 소속된 다른 투수들보다 항상 많은 경기에 나섰고, 늦게 비시즌을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휴식기간을 가졌다.

2021시즌을 마친 류현진은 조만간 귀국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PS 진출의 아쉬움을 이번 휴식이 잘 준비해 내년 반등으로 보여줄 지 주목된다.

김우정 기자

코리안 듀오 'EPL 접수'

손흥민·황희찬 7R 베스트 11

손흥민(29·토트넘)과 황희찬(25·울버햄프턴)이 나란히 이번 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접수했다. 두 선수는 영국 방송 BBC가 뽑은 EPL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린 것.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서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당연한 자리씩을 꿰찬 것.

BBC가 4일 발표한 2021~2022 EPL 7라운드 '가스 크루스의 이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3-4-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황희찬은 공격진 정중앙에 배치됐다.

손흥민은 3일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토트넘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2대1 승리를 이끌었다.

전날 27분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선제골을 도우며 올 시즌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고, 후반 26분에는 결승골이 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토트넘은 이 승리로 리그 3연패에서 탈출하며 8위(승점 12)로 올라섰다.

황희찬은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책임지며 2대1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올 시즌 EPL에 진출한 황희찬의 리그 첫 멀티 골이다.

크루스는 황희찬에 대해 "울버햄프턴이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할 '골잡이'를 찾은 것 같다"며 "황희찬은 두 골을 훌륭하게 넣었고, 모두 히메네스의 도움을 받았다. 황희찬의 마무리 능력은 울버햄프턴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희찬과 함께 7라운드 베스트11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필 포든(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이 선정됐다. 미드필더에는 손흥민, 호이비에르와 앤드루스 타운센드(에버턴), 베르나르도 실바(맨시티)가 포함됐다.

이창환 기자

박인비·고진영 슐라이트 클래식 공동 2위

2라운드 5타 뒤지던 부티에 우승

박인비(33)와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슐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나란히 공동 2위에 올랐다.

전날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린 박인비와 고진영은 4일 미국 뉴저지주 갈러웨이의 돌체 호텔 시부 베이코스(파71·6천19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나란히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박인비와 고진영은 브룩헨더슨(캐나다)과 함께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은 14언더파 199타의 쉐린 부티에(프랑스)에게 돌아갔다.

아쉬운 결과였다. 2라운드까지 2타 차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과 박인비는 이날 중반 이후까지도 선두를 내달리며 우승 가능성을 불풀렀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은 전반에 3타를 줄이며 14언더파까지 치고 나갔고, 세계 랭킹 3위인 박인비 역시

전반에 2타를 줄이고 고진영과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후반 들어 고진영이 보기만 1개를 적어내며 전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박인비도 후반에 버디와 보기 1개씩 맞바꾸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때 치고 나온 선수가 바로 부티에였다. 2라운드까지 6언더파로 고진영, 박인비에 5타나 뒤진 공동 10위였던 부티에는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6개를 몰아치며 선두 추격에 나섰다. 16번 홀(파4) 버디에 이어 18번 홀(파5)에서도 약 2m 거리 버디 퍼트를 넣고 단독 1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기록한 부티에는 2019년 2월 ISPS 한다 빅오픈 이후 투어 통산 2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26만2천500 달러(약 3억1천만원)다.

부티에는 9월 18일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라코스테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했고, 이번에는 미국 대회까지 제패하며 최근 2주 사이에 두 번이나 우승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창환 기자 lc156@maeil.com

전지 훈련중에, 경북체육회 컬링 6전 전승 우승

남국가대표 캐나다 대회 참가 "지금은 손발 맞추는 과정일뿐"

남자컬링 국가대표 경북체육회가 캐나다 전지 훈련 중에 참가한 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킵 김수혁, 서드 김창민, 세컨드 전재이, 리드 김학균으로 이뤄진 경북체육회는 4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앨버타 컬링시리즈 에이보네어' 결승에서 캐나다의 팀 존슨 타오를 7대2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예선에서 4전 전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북체육회는 각 조 1위끼리 맞붙는 결선 토너먼트에서 팀 존슨 타오를 6대4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팀 존슨 타오를 다시 만난 경북체육회는 5엔드까지 7대2로 앞서며 상대의 항복을 받아냈다.

2021~2022시즌 태극마크를 달고 첫 국제대회 우승을 거둔 경북체육회 스킵 김수혁은 "우승해서 기쁘지만 지금은 손발을 맞추는 과정으로 보완점이 많다"며 "잘 준비해서 다음 주 메이



캐나다 앨버타 컬링 시리즈 대회 우승한 남자컬링 대표팀 경북체육회.

경남신문

저대회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 11~18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올림픽 자격대회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체육회는 전지 훈련 중 처음 출

전한 ATB 오코톡스 클래식에서는 8강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이 대회 여자부에 출전한 여자컬링 '컬스테이'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은 준결승에서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우정 기자

대구 적극행정·시정혁신 최우수 자연재난·스마트시티과

市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우수 수성구 교통과
시정혁신-우수 서구 교통과

대구가 시정의 관행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시정 자연재난과는 '반복적인 작업도 복잡한 자료 수집도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한 번에'라는 주제 발표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시정혁신 분야에는 '인공지능 기반 도심 교통혁신으로 운전과 보행이 즐거운 도시 만들다'를 발표한 스마트시티과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밖에 적극행정 분야에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걷자'(수성구 교통과), 시정혁신 분야에 '자치경찰 1호 사업, 전국 최초 스마트 안심 버스승강장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부서 담당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설치(서구 교통과) 등도 각각 우수 분야로 선정됐다. 대회에서 적극행정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4건)는 기관 또는 부서에 수여되는 시장상과 시상금을 받는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인사상 특별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우대된다.

유튜브 대구시정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했다. 90건의 시정혁신·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0건의 사례가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사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체감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 평가단 4명으로 구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변화와 혁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춘 적극적인 행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 앞서가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전 기자 psj@imaeil.com



이찬원 팬클럽·GS25, 2천만원 상당 물품 지원 트로트 가수 이찬원 팬클럽 '찬스'(Chan's)와 GS25는 1일 대구 동구청을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백미, GS25 할인권 등 2천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



신용보증기금 대경본부 이웃돕기 백미 50포 기탁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본부장 김성현)는 1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백미 10kg 50포(150만원 상당)를 정순교 사회공헌담당부장이 대구 동구청을 방문해 기탁했다.



만촌2동·사회보장협의체 무인나눔캠페인 실시 대구 수성구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만촌네거리 일대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무인나눔캠페인을 실시했다.



봉화향교, 2021년 추계 석전대제 거행 경북 봉화향교는 3일 지역 내 유림단체와 문중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이날 조연관은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이 맡았다.



봉사단체 영우회, 난방용품 기탁 봉사단체 영우회(회장 류종태)는 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극세사 전기요 11개(140만원 상당)를 대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BNK경남은행, 명승지 망원경 설치비 3천만원 기증 경남 창녕군은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이사장 최홍영)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창녕남지 개비리길 망원경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가수 김호중 팬카페, 대구의료원에 커피·쿠키 등 전달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인 '대경 트바로티 with 아리스'(회장 천순옥)는 지난달 30일 김호중의 생일(2일)을 앞두고 대구의료원 의료진 52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쿠키 그리고 김호중 클래식 CD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달성군수 '비슬산 케이블카 관심 가져달라' 총리에 건의

김문오 군수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대구시 제1호 관광지 비슬산의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서 보완 작업 등 막바지 절차에 이른 가운데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1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김 총리를 만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과 노약자들의 숙원이고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 사업과 관련, "이미 비슬산 주변 불교계(3월), 대구시노인회(6월), 전국환경단체연합회(6월), 대구시장애인협회(7월) 등에서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카 조기 설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비슬산의 참꽃단지과 천연 고찰 대견사를 언급하고,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오(오른쪽) 달성군수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협조를 부탁했다. 달성군 제공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대구환경청)가 달성군에 ▷ 기존 관광용 전기가 폐지 계획 제출 ▷ 이용객 수송 규모 축소 ▷ 일부 탐방로 폐쇄 등을 보완 요구한 상태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비슬산 공영주차장에서 대견봉까지 1.9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달성군은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swkim@imaeil.com



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인 구미시민운동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비대면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 점검

구미시민운동장 찾아 관계자 격려 주경기장 등을 둘러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서 올해로 순연된 전국체육대회는 관중 없이 비대면·온라인으로 고등부 경기만 열리게 됐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영주)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훈 기자 apple@imaeil.com



수성구, 지구 위한 착한 운동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일상생활 쓰레기 배출 '제로' 실천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1일 범어네거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대구 수성협의회와 함께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은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의미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수성구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손수건·탐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

수거 등 제로웨이스트 실천수칙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수성구는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해 구청 내에 우산빗물제거기,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명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영업을 하는 가게를 발굴해 제로웨이스트숍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 보전에 큰 보탬이 된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식 기자 lhssk@imaeil.com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열린 '영천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영천시 제공

영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푸드플랜' 수립

국비 공모 선정 사업비 1억원 확보 영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영천시는 '2021년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

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정책 분석 및 과제 도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로컬푸드, 공공 급식 등 먹거리 관련 조례 제정,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선일 기자 ksi@imaeil.com



칠곡 봉암리 경로당, 어려운 이웃에 치킨 전달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경로당은 2일 어려운 이웃에 치킨 70마리를 전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준 김상훈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음악회' 경북 구미시전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근희)는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야외무대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가족 놀이축제인 '가족음악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대구 동구 MG새마을금고협,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함께하는 동구 MG새마을금고협의회'(회장 홍재곤)는 최근 DCU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제2회 대한민국 죽농예술상' 본상에 정상옥 씨

첫 시행 신진작가상 황미숙·김동협 씨
죽농 서동균 선생 기려 매년 1회 시상

(사)죽농서단이 주최하고 죽농예술상 운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죽농예술상 본상에 정상옥 씨와 신진작가상에 황미숙·김동협 씨가 선정됐다.

죽농예술상은 죽농 서동균 선생의 예술사상과 창작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 서예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헌서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작가를 뽑아 매년 1회 시상한다.

본상 수상자 정상옥(76) 씨는 중국 산둥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내 대학에서 서예에 대한 교육 활동을 했으며 한국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요람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본상 정상옥 씨



신진작가상 황미숙 씨



신진작가상 김동협 씨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신진작가상 수상자인 황미숙(51) 씨는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했고 2009년 대한민국 죽농서화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개인전 6회와 한국서예신인작가 선발 초대전 등 각종 전시회에 초대되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신진작가상을 받은 김동협(48) 씨는

여러 대학에서 서예와 동양학 및 한문학을 강의하는 한편 2021년 대한민국 죽농서화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 신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3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20일에 열린다.

우문기 기자 pody2@imaeil.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조합원들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에 남윤찬(왼쪽 두 번째), 조달흠(오른쪽 두 번째) 시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안동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에 조달흠·남윤찬 의원

전공노 안동시지부 1천122명 설문조사

안동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달흠·남윤찬 의원이 안동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의정 활동을 잘하는 '베스트 시의원'으로 뽑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 1천122명을 대상으로 베스트 시의원 의견을 묻은 결과 조달흠, 남윤찬 시의원이 각각 의정활동을 잘하는 시의원으로 선정됐다.

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범어도서관 유명 건축가 초청 '인문학적 건축' 릴레이 강연

이동혁·심재익·동원서 씨 등 12회 마련

대구 범어도서관이 '건축인문학·건축,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릴레이 강연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삶 속의 건축을 이해하고 인문학적 건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달 28일 승효상 건축가의 '삶을 짓다, 사람을 담다'라는 강연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달 21, 28일 이동혁 건축가의 '우리 가족 전원 주택 집짓기' 강연 등 12월 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이어진다.

우리 지역 건축가들도 강연에 동참한다. 세계 건축가연맹(UFA) 공식 베어링해륙 국제 설계 등



지난달 28일 범어도서관에서 열린 승효상 건축가의 '삶을 짓다, 사람을 담다' 강연. 범어도서관 제공

국내외 설계 공모에 당선된 바 있는 심재익 건축가(11월 4일), 수성구청 공공건축가인 동원서 건축가(11월 5일), 전 대구경북건축가회장 최상대 건축가(11월 6일), 만촌동 전원주택 '수

미가'의 이우진 건축가(11월 12일), 부산시 공공건축가인 최영준 건축가(11월 19일), 대구대 건축공학과 전필준 교수(11월 26일), 영남대 건축학과 교수 에밀리아고 고호(12월 3일) 등이 강연에 나선다.

또 11월 11일 독일 출신 한옥 전문 건축가 다니엘 텐틀러의 'Understanding 한옥', 11월 20일 윤광준 사진작가의 '내가 사랑한 공간들: 인상적인 도시의 건축', 11월 27일 지정우 건축가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도서관 설계'에 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범어도서관 측은 "건축 전문가들의 건축철학, 건축설계, 건축물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지역의 건축인문학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지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53)668-1618.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한국폴리텍대 영남캠퍼스·에이치엠지 공동 기술개발·현장실습 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학장 한해진)는 최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소재 ㈜에이치엠지(대표 김진상)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치엠지는 친환경 자동차용품과 후대용 보조배터리, 후방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교수들과의 공동 기술개발부터 학생 현장실습까지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되는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내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인력양성에 뜻을 같이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인 'P-Tech'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한해진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고용 창출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에이치엠지와의 협약이 대학 내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취업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동정

대경청년CEO 스케일업 플랫폼 개최



이진숙 우리함께 운동본부 이사장은 2일 성주하늘목장(경북 성주군 벽진면 달창길 28)에서 '대경청년CEO 스케일업 플랫폼'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CEO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인석 이랜드 경영고문의 강연과 창업·경영 멘토링도 있었다.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선비문화·고택 강연



김구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라북도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이 초청하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에 출연해 선비문화와 고택에 관해 강연했다. 코로나19로 방청객이 5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에는 정소희(대담), 신정하(가야금), 안형모(생황), 김성혁(아쟁) 등 명인들이 참여해 전통문화와 국악의 향연을 펼쳤다.



수성구 '대구시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캠핑카 등 레저용 차량 과세 기준 제안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성구는 4일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 방안으로 기존 차량과 구별되는 레저용 차량에 대한 별도의 과세 기준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레저 문화 확대에 따른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 방안'을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안 내용은 1987년 제정된 현행 자동차

분류 방식이 현재의 차종 다변화와 최근의 자동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 레저 문화의 하나로 캠핑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캠핑카와 캐러밴의 보급이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성구는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 방안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해 연구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화섭 기자 lhssk@imaeil.com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부, 경북도환경연수원 지정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이 환경부로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정규과정'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북환경연수원은 앞으로 3년간(2024년 9월 30일까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정규과정'을 운영해 사회 환경교육을 선도할 사회 환경교육지도사를 배출하게 된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들은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 사회환경교육 단체,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경북환경연수원은 2018년부터 3급(간이) 양성과정을 운영해 현재까지 204명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배출했다. 심학보 원장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급 정규과정 양성기관 운영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용 기자 yong126@imaeil.com



시공간이 1일 대구 동구 대영레테코 세미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시공간 제공

시공간 세 번째 동인지 '스타다방' 출간 김종래·모현숙 씨 등 8명 72작품 실려

우리 지역 문학단체인 '시(시)공간'(회장 박용연)이 세 번째 동인지 '스타다방'을 냈다.

2019년 '바람집을 썰다'라는 첫 동인지를 창간한 시공간은 지난해에도 동인지 '가을전여와 춤추다'를 펴낸 바 있다.

'스타다방'에는 김종래 시인의 '꿈지 붉은 종달새 한 마리 그려 넣기'를 비롯해 모현숙, 박상봉, 박소연, 박용연, 서정량, 송원배, 이복희 시인 등 8명의 작품 72편이 실렸다. 김태진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5일(음력 8월 29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36년생 휴식은 업무 능률을 위해 당연한 것이니 너무 터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48년생 작은 실수가 찾아지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도 젖은 듯이, ▶60년생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침부터 기운 빠질 수 있으니 작은 목표라도 세우 보세요. ▶72년생 마음애 두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최고이니 속 편한한 게 제일이에요. ▶84년생 재물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게 되지만 적자가 아닌 것에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37년생 적당할 때 물러서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남는 것이니 쿨하게 돌아서야 해요. ▶49년생 지나치게 정확하고 지나치게 깔끔해도 좋지 않으니 오늘은 인간미를 보여주세요. ▶61년생 기대하는 일을 이루기 어려운 운세지만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73년생 착하다 해서 모두 잡되는 법은 없답니다. 오늘도 요령도 부릴 줄 알아주세요. ▶86년생 작은 불가능한 일이라면 굳이 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94년생 잘 보이게 하세요.	▶38년생 풍족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도 않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임해 보길 바랍니다. ▶50년생 너무 크게 정하고 지나치게 사람에게 행운이 옮겨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2년생 뜻밖의 귀인이 있으니 오랜만에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 ▶74년생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날이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6년생 작은 기쁨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수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39년생 중요한 사람을 맞닥뜨릴 수 있는 날이니 웃으면서 좀 더 신경써 보길 바랍니다. ▶51년생 대인운이 좋아 웃음이 넘치는 날이네요. 오해가 있다면 하루빨리 풀어주세요. ▶63년생 적당한 하자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75년생 내키지 않아도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빨리 처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87년생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예요. 내가 웃음 메이커가 되어 봐도 좋겠습니다.	▶40년생 사소한 문제가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52년생 만족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느껴요. ▶76년생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데 쓰지 말고 가족들에게 써보는 건 어때요? ▶88년생 나이 시간이 갖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계획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41년생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용서 보길 바라요. ▶53년생 비굴하게 나를 너무 낮출 필요 없으니 멋있게 행동하여 기세를 잡아주세요. ▶65년생 대인운이 좋지 않으니 혹시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요? ▶77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니 더 시간 끌지 않길 바랍니다. ▶89년생 여가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계획으로 시간을 잘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42년생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날이니 소신 갖고 거래해야 합니다. ▶54년생 결속만 보고 결정하다가 빈 강정을 택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주세요. ▶66년생 자영업이라면 고객과 수입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으니 친절을 유지해 보세요. ▶78년생 괜히 불통 될 수 있는 날이니 확실해질 때까지 어느 선하게 벌인 일 중 결과 과가 미비한 것은 빨리 정리하고 갈아타길 바랍니다.	▶43년생 나무터 잘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요. ▶55년생 간단한 사람보다 더 인색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7년생 평소 잘 알던 것도 지나칠 수 있으니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79년생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먼저 화해를 청해보는 게 좋겠네요. ▶91년생 간에 불타고 쓸개에 불이 들어오면 사람과 자꾸 미워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네요.	▶44년생 상대방의 신념이 관찮은지 먼저 살펴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56년생 과거에서는 아끼 계속해서 과거 속에 머물러선 안 돼요. ▶68년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앞으로의 내 계획과 자신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80년생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절친한 기의 뜻을 되새기며 쉽게 굴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92년생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미워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네요.	▶45년생 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만의 장소로 가서 조용하게 대화로 이겨야 해요. ▶57년생 말이 씨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나의 자존감을 깎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69년생 애써 말 고쳐서라도 내 말을 들어주세요. ▶81년생 말 한마디에도 다름이 날 수 있으니 고집을 꺾고 감정 절제가 필요한 날이네요. ▶93년생 일찍 귀기우려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46년생 힘든 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지 않아요? 때문 이기적 인 행동도 괜찮습니다. ▶58년생 남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70년생 오이 좋은 아이디어가 솟아날 수 있으니 고민을 꺾고 감정을 절제가 필요한 날이네요. ▶95년생 빌려준 돈과 함께 받은 수 있는 날이니 돈거래는 삼가거나 피하는 게 좋겠네요.	▶47년생 가벼운 일이 문제되는 날이네요. ▶59년생 누구나 막바지 단계에선 힘 빠지기 마련이죠.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71년생 기분 좋게 일하는 날이네요. ▶83년생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날이니 슬픈 행동은 유념하세요. ▶95년생 빌려주고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날이니 돈거래는 삼가거나 피하는 게 좋겠네요.

손님의 불만에 대처하는 진심 경영



EBS1 'EBS 비즈니스 리뷰' 6일 0시 15분

EBS1 TV 'EBS 비즈니스 리뷰'가 6일 0시 15분에 방송된다. 작은 가게에서 배우는 경영을 주제로 손님...

라인도 소중하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컴플레인...

cpbc FM 96.9 MHz 프랑가를 리빙화방송 그대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후 2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89년 10월 5일 달라이 라마, 노벨평화상 선정

"우리는 (중국과)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과 고통을 가져오므로 우리의 투쟁은 비폭력적이고 중...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TBC/SBS, EBS1.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KBS 053)757-7321 MBC 053)740-9500 TBC 053)760-2000 EBS1 1588-1580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대체로 맑음' (Mostly clear), and '5일간 예보' (5-day forecast).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키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569-5995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TV, OCN, 인디필름, 스크린, 캐치온, 씨네트,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투니버스, JEI재능TV, YTN 사이언스, 내셔널유그래픽, cpbc TV, 불교BTN TV, CGN TV, Star Sports, CNN Int'l, EBS플러스1, EBS2.

Healthcare advertisement titled '밤에도 안심하세요' (Sleep peacefully even at night) - 야간진료 병원 (Nighttime Clinic Hospital). Lists various hospital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작명전문' (Professional Naming) and '개명' (Name Change)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크이름' (Cryeum) and 'TBN 대구교통방송'.

파격세일! 50%

아놀드파마



NAVER 검색창에 아놀드파마 신발 를 쳐보세요

1석4조 골프화, 일상화, 패션화, 워킹화, 전천후 (100% 천연소가죽 / 국내생산 MADE IN KOREA)

아놀드파마 챌린저1,2 원터치 다이얼시스템은 안정되고 편안한 피팅감을 제공하며, 3D블록 스파이크는 우수한 접지력 및 내마모성을 통해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한다. 일상화 및 기능성 골프화로도 활용할 수 있어 1석4조이다.

어떤 환경에도 자신있다!



챌린저2 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20 브라운 / 250~280mm(남성용)



챌린저2 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21 블랙 / 250~280mm(남성용)



챌린저1 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01 화이트 / 250~280mm(남성용)



챌린저1 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02 블랙 / 250~280mm(남성용)

~~139,000원~~
69,500원

아놀드파마 챌린저 시리즈

울트라멀티 슈즈

일상화에서 골프화, 등산화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다용도화
강력한 최첨단 신소재 안전기능을 내장하여 발부상없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천연 소가죽 + 고급메쉬 100% 국내생산

< 단체주문환영 >



아놀드파마의 강력한 기능성 6종구조 + 다이얼 슈즈

초강력 안전 토우캡

강철보다 강한 강화를 라스틱 토우캡을 장착하여 작업시 무거운 물체가 발등에 떨어지거나 돌부리에 채이거나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고위험 작업군이나 산업체, 전문등반가등 전문직종에 유용하며 건설현장, 철강공장 등에서 발의 보호를 위해 안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력한 강화플라스틱 토우캡은 실내외 모든 활동에서 안전화같은 강도로 발을 보호하여 부상없이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여 준다.

고급 메쉬소재와 천연소가죽으로 통기성이 뛰어나고 신축성과 부드러움으로 발을 감싸준다. (국산코어텍스)

쿠션이 좋은 안창으로 환기성이 뛰어나고 강한 항균작용으로 악취발생을 억제해준다.

충격을 흡수하여 발목이나 무릎에 닿는 충격을 완화하여 부상을 방지하고 발을 편하게 한다.

케블라 중창은 방탄복에 사용되는 소재로 못이나 날카로운 물체가 발을 뚫지 못해 위험한 작업시에도 발바닥을 보호해 큰 부상을 방지해 준다.

강한 쿠션감과 충격방지 기능으로 완벽한 보행이 가능



멀티 매쉬+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88 네이비 / 250~280mm(남성용)

멀티 매쉬+천연소가죽 / 엠보싱 러버창
APS-77 블랙 / 250~280mm(남성용)

강철보다 더 강력한 토우,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 유럽풍 디자인
57% 파격할인 특별할인가: 189,000원 → 79,500원

출시기념
57% 파격할인

정장화, 워킹화, 런닝화, 일상화로 활용! 사계절용 전천후 오토화! 초경량! 쿠션감! 충격흡수 2중 에어백!

파워핏 특별할인가: 138,000원 → 59,500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춰 워킹, 런닝, 일상화로 인기폭발 (made in china)

2020년형 신제품 아놀드파마 파워핏 오토화는 최신형 보아 시스템 및 2중 AIR BAG을 장착하였고, 열 가소성 고무 아웃솔로 미끄럼을 잡아 주어 안전한 보행이 가능. 한국인 족형에 최적화 된 리스트를 적용하여 편안한 착화감으로 장시간 보행시 발의 피로감을 낮춰 준다. 2020년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50% 파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파워핏 매쉬+듀스포립/파이론창
APS-13 블랙 / 230~280mm(남녀공용)



파워핏 매쉬+듀스포립/파이론창
APS-14 그레이 / 250~280mm(남성용)



파워핏 매쉬+듀스포립/파이론창
APS-15 와인 / 230~250mm(여성용)

인터넷주문

www.arnold-palmer.co.kr

주문전화: 1522-9115

입금계좌 : 국민은행 565001-01-512914
(예금주 : (주)이지통상)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 택배비 3000원 소비자부담>

ESG의 파도, 지역 기업도 대비해야

기고



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선진국 글로벌 기업에서 시작된 ESG 경영 파도가 국내 기업들에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이 경영을 할 때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고려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ESG 확산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은 어떠한가. DGB금융그룹 등 몇몇 대기업은 제외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ESG와 관련이 없다는 인식과, 친환경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나 전문 인력 수준으로 볼 때 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ESG는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는 먼 나라 얘기일까.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수출을 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로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의 ESG 제재 및 대기업의 ESG 활동 보고가 관계 회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만간 선진국의 바이어나 대기업은 협력사나 관계사인 중소기업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 관계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는 날이 닥칠 것이다. 특히, 고탄소 배출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ESG 파도가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결국 ESG는 선진국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므로 피할 수가 없다.

또한 ESG의 거친 파도가 반드시 지역 중소기업에 위협 요인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지워지는 ESG 도입에 대한 부담은 역설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ESG 준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수록 ESG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협력, 투자 유치 및 자본 조달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공급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LG전자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제품 안전, 노동, 환경 등 측면에서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이를 협력사 선정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중소기업 특성상 의사결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오너 또는 최고경영자(CEO)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과감한 변화 의지가 요구된다.

둘째, ESG 이슈가 워낙 방대하므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 처한 상황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ESG 이슈와 연관된 부분을 중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핵심 사업과 연계된 프로세스에 ESG 이슈를 연계시켜 전사적 차원의 ESG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ESG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유기농 식탁을 차리라는 격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왕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세계의 창



정상환

변호사

국제는 국익 우선 국내는 주류 중심

대중은 '트럼프의 현실적 접근' 지지

재무 책임자 탈세 등 혐의 기소돼도

미국 전직 대통령 처벌에 매우 신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논쟁적인 대통령은 없었다. 최근 미국 역사학자들 대상의 역대 대통령 리더십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를 단지 아버지 덕에 부를 쌓고 리얼리티 쇼로 명성을 얻은 후 대중의 심리에 영합해 대통령에 오른 사람으로 치부하면 미국 정치의 중요한 단

면을 놓치게 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어느 엘리트보다 더 똑똑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유색인종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백인 불류갈라의 공포심을 간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여 주요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는 배짱도 좋았다. 그해 대선 막바지에 트럼프의 음담패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모두 멀리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만약에 내가 지더라도 혼자 버너지 않는다. 공화당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고, 결국 승리했다.

트럼프는 재임 내내 인종주의적 언행으로 전국적 시위 격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공적도 적지 않다. 그는 미국이 힘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에 의문을 품고 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간전 종전의 길을 열었으며, 재임 중 전쟁을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에 직면해 '초고속 작전'(warp speed operation)을 통해 작년 10월까지 약 180억 달러를 제약회사 등에 지원하고 FDA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민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1년 이

내에 백신을 제조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철강, 태양광산업 등의 정부 보조금 지급 부당성을 제기하고 대결을 불사함으로써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의 틀을 바꿨다.

재선에 실패한 그가 조용히 물러났다면 그러대로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작년 대선 결과에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올해 1월 6일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그의 연설을 들은 후 의회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트럼프는 사상 최초로 재임 중 두 번째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으며, 트위터 등 SNS 계정이 폐쇄되는 굴욕을 당했다. 대신에 그는 미국의 어느 전직 대통령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CNN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화당원 59%가 트럼프가 작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것이 공화당원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트럼프는 보수층의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케빈 매카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자주 플로리다로 찾아올 정도로 당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던 디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등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보복을 공언했다. 공화당 주변에서는 다음 선거의 당내 경선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지지를 얻거나, 적어도 그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대중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와는 달리 그는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 공화당원들은 미국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평화를 증진해야 한다는 대의보다는 국제 관계에서는 국익을, 국내 관계에서는 주류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현실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맨해튼지방검찰청은 트럼프의 재무 책임자를 탈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트럼프를 기소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2009년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 기소 사례를 찾아보았는데 그런 예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전직 대통령 처벌에 대해서 매우 신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나 그 자녀들이 구속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고 현재도 2명의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그 나름의 사정이야 있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 처벌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까.

트럼프 다시 보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입법 진행에 대해 전철철 행정안부 장관 "재투표 등 경북도의회 의견 보완" 요구. '찬성'에 서명하고는 막판에 '의견 없다' 뒤집은 도의회와 도의회 핑계 대는 행안부, 시방 '오징어 게임' 촬영하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측근 여부 놓고 말 바꾸기 빈축. '측근인 듯, 측근 아닌, 측근 같은...' 뭐 이런 느낌?

○...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 "앞으로 저희는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것이고 배에도 복근 왕 자 안 새기겠다"며 너스레. 윤석열 손바닥 왕(王) 자 논란으로 이번이 제대로 손 댄 듯.

每日 희평

김경수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편집인·인쇄인 이상택 **정창룡** 뉴스국장 김교영 신문국장 이동관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054)855-17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대표팩스 053)255-8902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료 080-711-2002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7-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 탄성우레탄 시공

물이 새고 습기가 차 비만 오면 걱정이십니까?

★방수 우레탄 시공공법

- 1차) 바닥정리, 균열보수 및 바닥면 깎기 작업후
- 2차) 우레탄 하도작업 2회
- 3차) 방수용 탄성 우레탄 중도 3mm로 균일시공
- 4차) 상도 우레탄 코팅제로 도장마감

★도장부 ⇒ 건축 내·외장 페인트칠 공사

- 주택, 상가, 공장, 원룸 • 공장바닥 에폭시, 라이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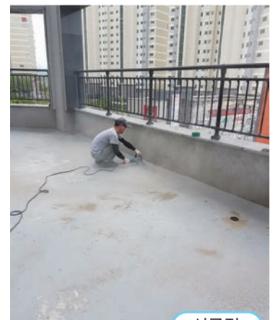
★외벽 침투방수 외벽균열 보수공사

★하자보증 3년책임, 견적 무료 출장 상담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청구 중수 책임시공

무료견적 : (053)627-7704
010-6347-0778

2022년, 대구의 물감 섞을 때

세풍 世風



정인열
논설위원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뜻에서인지 대구가 외치는 구호에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가 있다. 결맞은 한글 낱말이 없는지, 찾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굳이 영어로 돼 있어 사전을 보니 대략 '색깔 있는 대구'쯤 되리라. 낮은 사람이 듣거나 보면 정말 대구는 '형형색색'(形形色色)의 '찬란한' 도시인 줄 착각하고 오해할 만하다.

물론 건물 색깔이나 야간 조명은 그렇지 모르지만 대구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흔히 한 사회를 구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살피듯 대구를 보면 어떤 색깔은 분명 단조롭기만 하다. 검고 흰 흑백(黑白)처럼 겨우 한두 가지면 대구 색은 충분하다. 물론 흑백도 색(色)이다.

먼저 정치! 대구의 황량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 대구에 뭘 정치가 있느냐

고 할 정도로 황폐하다. 한때 보수에서 진보까지 그 사이 세력도 숨 쉴 틈은 없었다. 그런 정치색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아득하다. 마치 고독성(高毒性) 농약 살포로 벌레가 사라지자 옥토(沃土)에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침묵의 봄'이 덮친 척박한 들판 같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의 정치 지형이 나라의 정치 흐름이나 색깔 변화와 달리 어느 때부터 멈춰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대구의 격정인 뒷걸음질하는 지역 경제, 전국 꼴찌 경제 지표, 젊은이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와도 통한다. 이런 사정이나 대구의 사회, 문화 등 못 분야 역시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마저 잃고 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린 탓에 지역발전 위한 정치 균형의 복원력을 갖추기 어렵게 됐고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니 정부의 예산 배정과 인사 등에서 소외되는, 섬에 갇힌 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 예산 증가율이 전국 6개 광역시에서 가장 낮고 평균 예산 증가율은 꼴찌라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분석은 좋은 사례다.

대구야 박근혜 정부 끝인 2017년 3조1천584억 원에서 2022년 3조6천17억 원(정부안)으로 14% 늘었다. 인천은 같은 기간 2조4천685억 원에서 4조3천929억 원으로 78%, 1조8천282억 원이던 광주시는 72% 증가한 3조1

천457억 원이었다. 대전도 같은 기간 46% 불었다.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대구는 2.8%,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8.6%)과 같은 부산, 비슷한 대전(7.9%), 두 자릿수의 인천(12.3%) 광주(12.3%) 울산(10.1%)에 한참 뒤졌다. 돈 말고 정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자료는 여럿 나왔다.

이는 대구의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대구의 꼴이 이러면 지방정부라도 변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되레 반대이다. 특히 대구시나 산하 기관·단체 인사를 보면 그렇다. 적임자를 찾아온 나라를 뒤질 판에 겨우 하는 꼴이 선거 때 쓴 인물쯤 고른다. 부모 나쁜 뒷모습만 본 지식처럼, 특정 연고자만 쓴다고 타하는 정부를 꼭 닮았다.

250만 시민 경제공동체가 마치 동네 구멍가게인 양, 온갖 부류가 어울린 사회공동체를 선거공동체로 착각하는 듯하다. 게다가 이를 침묵하는 대구의 특유한 '끼리끼리' 행태도 고약하다. 그냥 두면 대구는 희망이 없다. 대구 사람에게 내년 3월 대선도 관심이지만, 6월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단체장 선거,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지난 2일 사퇴한 광성도 무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을 잃으면 내년 3월 9일 후임을 뽑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중요한 까닭이다. 내년은 대구의 물감을 섞을 호기이다.

사설 社說

대장동 개발 특혜 배당 구조, 이재명 몰랐다면 말이 되겠나

'대장동 개발' 협약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의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천400만 원 이상'일 때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데 이어, 이후 주주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과 민영 합작 사업이다. 공영 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원주민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헐값에 땅을 매입하고, 분양할 때는 공영 개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상당 부분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개공이 아니라 민간인 소액 투자자들이 가져갔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 "내가 설계했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 씨가 구속되자 4일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시장 임명권자는 성남시장이다. 본부장 임명에도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맺던 2015년 성남시의 총예산은 2조6천800억 원 규모다. 대장동 사업은 1조5천억 원 규모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그런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혼자 결정했다면 누가 믿겠나. 게다가 지금 이 후보는 부정하지만 누가 봐도 유동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었다. 공영의 탈을 쓰고 토지 원 소유주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특 정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배당 구조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면 완전히 바보라는 말이다. 이후 보가 바보일까? '공모'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동규 휴대전화도 확보 못한 검찰, 수사 의지 있기는 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유 씨의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그 사이 유 씨는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 3시간 동안 유 씨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과 전혀 다르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술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통례다. 그러나 유 씨에 대해서는 초인종을 눌러 수사팀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친절'을 베풀었다. 특히 무슨 이유인지 검사가 유 씨를 단독 면담까지 했다. 압수수색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반응이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 유 씨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이상 행동이다.

유 씨의 휴대전화 행방을 둘러싼 검찰과 유 씨 간의 공방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유 씨는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에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이 나 던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가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업자가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일반 국민으로서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이 유 씨의 휴대전화 확보를 미적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유 씨가 던진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유 씨의 휴대전화는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이 노린 게 이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적자 나도 고액 연봉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공기업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8천155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00만 원 이상 올라 처음으로 8천만 원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실적이 악화한 공기업 연봉이 상승한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러니 공기업을 두고 '신의 직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한국수력원자력은 9천500만 원, 한국부동산원은 9천400만 원이나 된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 역시 폭증해 2016년 1억1천875만 원에서 2019년 2억1천90만 원으로 2억 원을 넘기더니 지난해엔 2억1천512만 원까지 치솟았다.

공기업이 좋은 경영 실적을 거둬 기관장과 직원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 영업 실적이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장 및 직원 연봉이 상승

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6개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 원, 2017년 4조2천억 원, 2018년 2조 원, 2019년 1조2천억 원으로 격감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6천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2016년 363조 원에서 지난해 397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게 기업 경영의 기본인데도 공기업에서는 그와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적자를 내면서도 연봉은 고공 행진하고 지난 한 해 2천10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기업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인원 확대 정책으로 직원 숫자를 대폭 늘려 공기업 부실을 키웠다. 4년 동안 공기업 정원이 2만3천여 명, 인건비 지출이 2조557억 원이나 늘었다. 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문 정부 잘못이 끝이 없다.



야고부
野鼓賦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서 사실상 승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게이트'에서 1조 원대 돈벼락을 맞은 업체의 이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다. 화천대유는 주역 64개 중 하나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다. 천화동인은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동 세상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대동 세상에 대해서는 예기 예운편(禮運篇)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복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평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기에 그 목표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대동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일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유동규 사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핵심 측근이다'는 문장이 적힌 기사(記事)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했다. 이제는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한다.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의 꼬리를 잡았다. 꼬리를 잡아당겨 몸통을 밝혀낼지, 아니면 꼬리를 잘라 몸통을 감추지 주목된다. 어쨌든 입으로 '대동 세상'을 부르짖으며 행동으로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돈벼락 떨어지는 '대장동 세상'을 만든 것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로 보인다. 석민 디지털보안실장 sukmin@maeil.com

대장동 세상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역사적 경험상 공정한 나라는 흥하고, 불공정이 판치면 망했다... 흥정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고 공동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포항시 포항

■ 구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입니다.

[2021년 제575돌 한글날 기념]



한글 제34회 매일 글짓기 경북공모전



*** 접수기간 2021. 9. 13 (월) ▶ 10. 17 (일) 까지 35일간**

- | **응모기준** | 경북에 소재한 학교 초·중·고·대학생, 경북도내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
- | **응모부문** | 초등학생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대학생 및 일반부
- | **응모분야** | 부문별 운문, 산문
- | **응모주제** | 길, 용서, 아침, 꿈, 인연 중 택일



●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 (구미문화예술회관 옆)
2. 우편접수 : 39280 구미시 송정대로 95(송정동)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팩스접수 : (054) 453-3334
4. E-mail접수 : pbs@imaeil.com (홈페이지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5. 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 www.imaeil.com(배너광고 참조)
6. 문 의 :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452-9999

● 시상계획

1. 입상자 발표 : 11월 초 매일신문 보도 및 개별통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은 열지 않습니다.
 (상패·장 및 상금은 우편 및 통장 입금됩니다)

● 시상구분 및 인원

1. 대 상 : 전체 1명 *상금 100만원
2. 장 원 : 부문·분야별 1명(총 8명) *상 금 30만원
 • 특별상(삼일장학문화재단 이사장상) *상 금 20만원
 초등 운문·산문 각 2명
3. 차 상 : 부문·분야별 2명(총 16명) *상 금 15만원
4. 차 하 : 부문·분야별 3명(총 24명) *상 금 10만원
5. 장 려 : 부문·분야별 4명(총 32명) *상품권 5만원

※ 시상금 원천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
 • 수상자별 상패(장) 및 부상을 수여함.
 • 학생부(초·중·고) 장원에게 경상북도교육감상(시상금은 주최측), 다른 입상자에게는 매일신문사장상을 수여함.
 ※ 응모하신 초·중·고 학교에는 당선작품집을 보내드리며,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로 오시면 당선작품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최 : 매일신문 ● 후 원 : 구미시 경상북도교육청